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떠나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자가 되어 어두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들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흥약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일서 2장 14절b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4월 16일 (토) 제 157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청소년 사역 돌파구, 선교여행·사역자 훈련

#### 바나리서치, 미국교회 유스미니스트리 현황, 추세 그리고 도전들 설문 통해 밝혀

위기에 놓인 미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선 청소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차세대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연령층 역시 청년들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자라난 거의 59% 정도의 밀레니엄들이 신앙을 등지고 살아간다. 지난 10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인으로 자란 밀레니엄들이 교회공동체를

떠나 비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44%에서 52%로 수직 상승하고 있어, 미국교회 역시 '유스 미니스트리'의 돌파구와 해법을 찾는데 적극적이다.

따라서 '바나리서치'는 이러한 미국교회 내에서의 '유스 미니스트리'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설문을 실시해,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았다(The Priorities, Challenges, and Trends in Youth Ministry).

미국인들 중에서 교회와 가장 가깝지 않은 세대는 다음 아닌 '밀레니엄'이다. 따라서 이번 설문문에 참가한 담임 목회자들 중 61%는 '유스 미니스트리'가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사역들 중에서 하나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7%는 단연코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처럼 분명하게 과반수 이상의 담임 목회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32%의 목회자는 유스 미니스트리가 그다지 교회 사역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위기에 놓인 미국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처럼 우선순위가 엇갈리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의 '청소년' 그룹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서 청소년의 숫자가 작으면, 그렇게 우선되는 사역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50명 이상이나(81%) 25-49명 정도의 학생들(71%)이 다니는 교회들에서는 당연히 우선순위를 중에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주요 사역이 된다. 반면에, 1-10명 정도의 교회들에서는 장년이나 주일학교 그리고 노년층 사역에 비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유스 미니스트리 역시 소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발생된다. 유스 그룹 사역이 큰 교회일수록 사역자

들이나 스태프들을 더욱 충원시키고 재정적 지원을 더해 프로그램들을 살찌우는 반면에, 작은 교회들은 오히려 재정적인 지원이나 스태프 충원을 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스 미니스트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나리서치는 설문을 했다. 50명 이상이나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유스 미니스트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회들의 유스 담당 목회자들은 바로 "제자 훈련과 영적 교육"(75%), "관계 형성"(48%)이 사역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전도와 아웃리치"(20%)가 병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3면으로 계속)

한편 바나리서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나 성경공부 이외에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들의 가치나 영향력에 대해서도 설문을 했다. 유스 미니스트리 사역자들은 특별히 캠프, 수련회와 장단기 선교 여행들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 "장단기 선교 여행"은 74%가 응답할 정도로 중요한 프로그램이었고, 수련회 장소에 가서 잠을 자는 수련회들이 45%, 주말 내내 진행되는 캠프들이 43%, 가족단위 선교 여행이 35% 그리고 대형 청소년 집회가 23%로 조사됐다. (3면으로 계속)



아주사나우 다민족 기도대회에서 진유철 목사가 기도인도를 하고 있다

### 우중에도 울려 퍼진 10만 기도의 함성 AZUSA NOW 다민족 기도대회 성황

#### 타민족들도 함께 "주여!" 삼창

1906년 LA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미국의 부흥이 다시 한 번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10만 기도의 함성이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울려 퍼졌다. 지난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열린 아주사 나우(Azusa Now) 참석자들은 인종과 민족, 언어의 장벽을 초월해 한마음으로 LA와 캘리포니아, 미국과 세계의 부흥을 간구했다.

가자 중에는 함께 찬양을 하며 기어다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첫 번째 순서로 배정된 한인기도순서에 맞춰 입장을 하지 못한 일부 한인교인들이 테러위험을 대비한 검문 등으로 입장이 늦어져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 그리고 안전요원들이 입장을 서두르다 약간의 소란이 있자 입장을 제지하며 한인들이 입장하는 게이트를 통제하기도 했다.

미국 중보기도 단체인 더 콜(The Call)이 주최한 아주사나우 다민족기도대회는 비가 내리는 곳에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용사 10만여 명이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오전 6시부터 입장이 시작됐지만, 그 시간에는 이미 주차장이 만원을 이뤘고, 행사장 출입구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 테러나 사고 등을 대비해 엄격한 보안 검색이 이뤄져, 긴 줄은 오전 10시가 넘어서도 줄어들지 않았다. 기도대회에 참석하기위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자들의 표정은 미국과 세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한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참

사의 뜻을 표하고 "이 기도회를 통해 부흥과 연합을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김경진 목사(나성영락교회), 정기정 목사(샘물교회),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가 미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 기도를 인도했다. 모든 내용은 영어로 동시 통역됐지만 한인들의 '주여 삼창'에 타민족들도 한국어로 "주여"라 외치며 기도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번 아주사나우 다민족 기도대회를 위해 한인교회는 한인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80개 교회와 24개 단체가 연합했으며 행사 전까지 교회별로 예배 때마다 중보기도하고 당일에는 새벽에 교회 단위로 버스를 빌려 행사에 참석하는 열심을 보였다. 한편, 이 모든 집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최대 2만 명이 동시 시청했고 이 영상물도 언어마다 별도 채널을 통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박준호 기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대표 박희정 목사 myong@joenchulpan.com

 2면 핑크족 청년무슬림들 현실불만, 영웅심리서 비롯!	 5면 아는 게 힘이다! 세라핌 사모	 7면 투고 칼럼 김병호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	---	---	--

# 초청합니다!

## 미국 장로교(PCA) 한인교회 협의회

### 제19차 총회 및 수련회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있는 미국 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교단은 1973년 성경관과 신학적 입장 차이(재산권 문제, 여자 목사 문제, 여자 장로 문제, 동성애 문제) 등으로 인하여PCUSA 교단으로부터 분립되어 나온 교단으로서, 그 때 당시에는 미 전국에 약 270개 교회 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로부터 43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미 전역에 약 2,000여 개의 교회들로 부흥 성장하였습니다. 이 교단 가운데 한인 교회들이 9개의 노회를 이루어서 약 350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인교회협의회(KCC) 제19차 정기 총회 및 수련회를 휴스턴 지역에서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신도들께서도 저녁 집회에는 참석하실 수 있으나, 월, 화,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노장수 목사님(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의 능력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도전과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장수 목사**  
달라스신학교 졸업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전)  
현 남가주사랑의 교회 담임목사(현)  
미주 코스타 공동대표

**PCA-CKC(한인교회 협의회)**  
**제19차 총회 및 수련회**  
회장 방 덕수 목사 서기 이 구광 목사 총무 김성철 목사

\*일 시: 2016년 4월 25일(월) - 28일(목) (3박 4일)  
\*집회 시간: 4월 25일(월), 26일(화), 27일(수) 오후 7시 30분  
\*집회 장소: 휴스턴 한인 장로교회(김성호 목사 시무)  
9002 Ruland Rd. Houston, TX, 77055  
Tel:(443)857-0129, (713)973-1123  
\*강사: 노장수 목사(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  
\*주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1:8)  
\*숙소: Hotel Crowne Plaza Northwest Brookhollow  
(12801 Northwest Freeway, Houston, TX. 77080)  
Tel:713-462-9977  
\*등록 안내: 2016년 4월 25일(월) 정오 12시 - 4시까지는 "숙소"에서 등록 받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한인장로교회"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오후5시에 교회예배, 6-7시까지 환영 만찬이 있습니다.  
\*문의: 준비위원장 이민승목사(832-264-9566)  
남부 노회장 배교순목사(713-240-3050)  
차량분과 위원장 석상은목사(713-320-7721)







### 시론

## 우리가 잃은 것은 순수함이다!



민경업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이민생활 속에 어떤 이유로 가든 대개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을 다녀오는 것은 즐거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 지루한 비행시간을 잘 보내는 것은 늘 쉽지 않은 일이다. 잠을 자는 것도 만만치 않고 기내에서 제공하는 영화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책 한 권을 들고 타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주제가 너무 무겁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책도 안 된다. 책이 너무 두꺼워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책이나 무슨 이야기인지 다음 이야기가 뻔하면 둘 다 흥미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한국 여행 중에 택한 책은 '문익환 평전', 800페이지가 넘는다 다소 부담스러운 책이기도 하였다. 신학적으로 나와 거리가 먼 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선택하게 했다.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여러 차례 감옥에 들어간 분으로 삶의 궤적이 나와 다른 분인 것에 호기심이 생겨 얼마 전 사둔 책이었다.

우선은 유려한 문체로 그의 평전을 써준 호사를 누리는 문 목사가 부러웠다. 그는 대한제국이 국권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해외 민족운동과 항일운동의 분산이라 할 수 있는 북간도의 계획 이주촌이며 운동주의의 고향으로 유명한 연길 바로 밑에 있는 명동촌 출신이며 그곳에서 초중 고교를 마쳤다는 사실도 내 마음을 끌었다. 당시 명동촌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며 구국일념으로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애국지사들이 이상촌 건설의 일환으로 세운 마을이었다. 또한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결부되어 참된 신앙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를 꺼려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환경이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란 문 목사에게 개인과 국가의 운명은 같은 배를 탄 동지일 수밖에 없었다. 요즘 한창 인기를 누리는 흑백 영화 "동주"에 나오는 윤동주, 송몽규와 함께 더 할 수 없이 다정한 친구였다는 사실이 독서의 흥미를 더해 주었다. 윤동주는 어릴 때부터 문학에 특별한 재주가 있었고, 송몽규는 연설을 잘했고 정치적인 리더십이 두드러져서 장래에 독립군이 될 가능성이 애초부터 높았다. 그런 가운데 문익환은 웅장한 외모에 음악적 재능이 분명하고 피아노도 잘 치는 사람이었다. 영화 "동주"에서도 보듯이 윤동주는 송몽규가 먼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교토제국대학에 들어가고 성격이 더 적극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다. 마찬가지로 문익환은 윤동주에 대해 늘 콤플렉스를 느꼈다. 그런 콤플렉스가 문익환 목사에겐 작용하여 29세의 나이로 이국땅에서 애석하게 요절한 윤동주의 삶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영향을 미쳤을까. 문익환 목사는 해방 이후 6.25 동란을 겪으면서 그의 탁월한 영어실력으로 통역원으로 일하였다. 그 가운데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한국인 없이 한국의 문제를 결정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기도 하며 민족의식이 더욱 불붙는다. 그리고 전쟁 후 혼란스런 분위기에서 나라의 어지러움을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들었다. 성경의 '공동번역본'을 번역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번역가로서 심혈을 기울이는 반면, 민주화 운동의 대부가 되어 국가보안법을 어기면서까지 방북을 결행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나 일싸안고 형제 운운하기까지 한 것들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동의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느꼈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의 약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여 총 5회에 걸쳐 12년간이나 옥살이를 하는 그런 신념이었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만개한 꽃처럼 피어나지 않았는가. 그는 7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21개월의 수감생활을 형 집행정지로 마감한 때가 76세였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많은 이들과 입장을 달리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은 것을 위해 노구에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 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지킨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 핑크족 청년무슬림들 현실불만, 영웅심리서 비롯!

## 뉴스위크, 젊은 무슬림 온상 된 브뤼셀의 "겉멋만 든 팝 지하다" 성장 배경과 대책 보도

### 브뤼셀 자폭테러

지난 3월 22일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해 32명이 사망하고 약 300명이 부상했다. 사실 전혀 예상 밖의 테러공격은 아니었다. 벨기에에는 시리아로 가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해 싸운 뒤 돌아오는 젊은 무슬림의 온상이 있다.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그들은 언제 테러를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그러나 중전의 극단주의자들과는 사뭇 다르다. 그들은 과거의 알카에다도 아니고 심지어 진정한 IS도 아닌 '뉴에이지 킬러'다. 그들을 IS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

협성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IS의 선전만 도와주는 셈이다.

그들 대다수는 2001년 9-11테러로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어린이였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지금은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늘 지켜보면서 성장했다. 이슬람에 관한 지식도 별로 없다. 열성적인 이슬람주의자라기보다 겉멋만 든 지하다(성전주의자)다. 정보 전문가들은 그들을 '지하다 쿨'이라 부르며 라이프스타일로 '팝-지하다'를 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뉴스위크지는 보도했다(Belgium's New Extremists: As Shallow as They Are Deadly: The old-line extremist networks have no connection to today's "jihadi cool" aficionados).

두고 테러리스트에게 관용을 베풀는 것과 같다고 격분한다. 그런 주장은 무지한 사람에겐 잘 먹히지만 정보 관리자들은 분노케 한다.

IS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훈련을 받고 그들에게서 영감을 얻은 핑크족에 불과한데도 그들을 'IS'라고 선포하면 IS는 거대한 세력으로 인식되면서 인기가 더 올라간다. 실제보다 더 강하다는 오해를 일으킬 뿐이다. 그럴 경우 그들은 모험과 관심을 원하는 젊은 무슬림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IS가 사전에 자신들이 전혀 몰랐던 공격을 두고도 자신들이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이 유다.

그렇다면 살의에 찬 '지하다 쿨' 추종자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뭘까? 외국 정보기관들은 시리아에서 싸운 뒤 돌아온 유럽 무슬림과 가진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들 중 약 20%가 중동으로 떠나기 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추정한다. 전과자 비율도 상당히 높다. 또 대다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척박해진 동네 출신이다.

브뤼셀의 테러범들은 '팝 지하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웃에 따르면 자폭테러범 अबراهيم 바크리위와 동생 칼리드는 독



## IS 합류 유럽거주 청년들 20%가 정신질환자, 전과자, 빈민가 출신 람보가 되고픈 자국민에게 위협... '액션히어로' 정치인이 문제 악화

그들은 친구 집이나 최근 해체된 무슬림 급진조직 '벨기에를 위한 샤리아(Sharia4Belgium)'에서 서로 어울리며, 초대받아야만 참여할 수 있는 페이스북 그룹에서 온라인으로 대화한다. 그들은 9-11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보다 미국 래퍼로 이름을 날린 투팍 사커를 더 잘 안다.

성전을 위해 시리아로 가는 벨기에 무슬림은 SNS에서 20년 전 충격으로 사망한 사커를 숭배하며, 미국 도시의 척박한 삶에 관한 그의 가사에서 동질성을 느낀다.

고유한 램 음악도 즐기며 젊은 무슬림 사이에서 인기 있는 옷차림을 좋아하는 그들은 시리아에서 중동의 전통적인 눈화장('콜'이라고 부른다)을 하고 짙은 셀카를 친구들에게 보낸다.

수업을 길게 기르고 코란을 든 학구적인 독실한 무슬림과는 판이하다는 얘기다. 그들에게 지하다나 급진 이슬람주의자로 불리지는 것이 최고의 찬사다. 그러나 지하다즘이나 이슬람주의를 제대로 모른다. 다른 시기나 다른 상황이라면 그들은 '무엇'나 '자아도취'에 빠진 불량 청년' 정도로 불릴 것이다.

그처럼 제멋에 빠진 알팍한 이슬람주의자가 지금 유럽을 위협한다. 유럽 국가들은 급진 원리주의 세계에 현혹된 무슬림을 대상으로 탈급진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그들에게 그런 교육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 이슬람을 거의 모르는 무슬림을 재교육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4년 8월 IS에 합류하

려고 시리아로 떠나기 직전 '초보자를 위한 이슬람'과 '초보자를 위한 코란'을 구입한 영국인 무슬림 2명이 좋은 예다.

시리아로 건너가 IS와 함께 싸운 유럽의 젊은 무슬림은 섬뜩할 정도로 많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중 벨기에 출신이 약 470명이다. 유럽연합(EU)에서 인구 1인당으로 따져 최다 국가다. 그러나 전체 숫자만 보면 프랑스가 약 1700명으로 가장 많다.

무엇이 그들을 급진 이슬람의 잔혹한 문화로 밀어 넣을까? 정보 관리자들이 따르면 '포레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과 '람보 갈망증'이 그 답이다. 치명적이지만 알다면 사실 웃기는 얘기다.

EU 범집행기관 유로폴은 지난 1월 18일자 보고서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외국인 IS 전사의 경우 대원 모집과 급진화 과정의 종교적인 요소가 '포레

압력'이나 '역할 모델' 같은 사회적 인 요소로 대체된다. 또 개인적인 믿음도 관련 있지만 중요하고 흥미진진한 역사의 일부가 된다는 낭만적인 생각도 그에 못지않다."

유럽 젊은 무슬림의 급진화와 테러리스트화를 막으려면, 그런 변화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슬람 급진주의 열성분자와 '팝-지하다'를 구별하지 못하는 허풍쟁이 정치인은 그 같은 변화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노력을

실한 무슬림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과가 있었고 브뤼셀 부근의 험한 동네에서 성장했다. 브뤼셀 자벨렘 공원에서 폭탄을 터뜨리기 직전에 감시 카메라에 찍힌 형 바크리위와 다른 극단주의자 2명의 모습은 그들이 이슬람을 잘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모두 옷차림이 단정치 못했고, 2명은 이발을 하지 않아 머리가 무성했으며, 적어도 1명은 콧수염이 제멋대로 자란 상태였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1986-2016 30th Anniversary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정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정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0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 청소년 사역 돌파구, 선교여행과 사역자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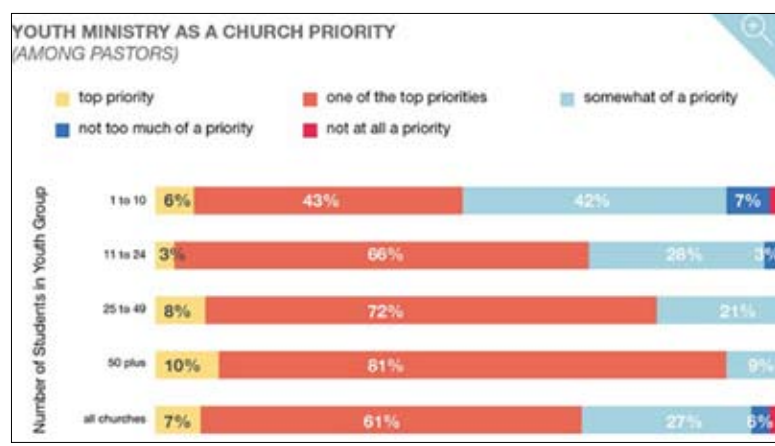
(1면에서 계속) 따라서 이번 설문에 참가한 청소년 사역자들 중 88%는 선교 여행들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와 신앙의 성숙과 실천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선교 여행들은 대부분 미국 내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설문에 참가한 사역자들 중 57%는 미국 밖으로 선교 여행들을 보내고 있고, 42%는 되도록이면 가족 단위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선교지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담임목회자들 역시 유스 미니스터리를 지탱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61%가 '선교 여행들'을 손꼽았고, 그 다음으로 주말 캠프들(55%), 철야 수련회들(39%) 그리고 대형 청소년 집회(34%)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사역에 있어 도전

도 만만치 않다. 바로 교회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나 청소년들이 소비사 입장에서 청소년 사역을 자신들을 위한 '소비 상품'식으로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서 리더십이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가 의식이 결

여되며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관련성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도전이 있다. 결국 청소년 사역자들은 "아이들이 너무 바쁘기"(86%)에 효과적

인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부모들의 무관심(41%), 결혼 가정의 여파(31%), 어른 자원

봉사자들의 부재(22%), 청소년들의 흥미 없어함(20%) 그리고 청소년들이 리더십 역할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19%)들이 청소년 사역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재정적 지원의 부족을 지적하는 사역자들은 불과 8%에 불과했다.

결론으로, 이번 설문은 대부분의 담임 목회자들은 청소년 사역의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국한되지, 어떠한 분명한 전략들이나 청소년 사역에 있어 총원될 수 있는 스텝진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설문은 미 전역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463명의 청소년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벌인 설문 결과로, +/- 4.6% 오차율과 95% 신뢰도를 보여준다.)

## 소망 칼럼

### 염려는 불신앙이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트라이언 에드워즈(Tryon Edwards)는 "염려는 생명의 빛을 퇴색시키고, 광택을 없애며, 힘을 약화시키는 자이다.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늘 신뢰하는 것만이 그에 대한 최선의 예방이요 치유이다" 라고 했다. 염려는 쓸데없는 노력이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두 할 수 있느냐"(마6:27)고 말씀하셨다. 한국 속담에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과 같이 염려도 쓸데없는 것이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왜 염려가 불신앙인가? 빌 4:6에 보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였는데 기도는 도무지 하지 않고 염려하니 불신앙이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환난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다. 이 염려와 근심은 몸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독소를 품고 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불신앙의 요소인 것이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항상 품고 다니는 것이다.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내 힘으로 살고 또 내 힘으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의 성공 여부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염려와 근심 없는 사람 없고 하루도 염려와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복음)이 아닐 수 없다. 염려는 무서운 독이라고 했다.

염려가 누적되면 정신 파탄, 생활 파탄, 나아가서는 인생의 파탄까지도 초래하게 된다. 신경질환, 노이로제 등은 염려가 누적되어 생긴 병이다.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사랑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힘쓰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염려가 물러간다.

존 호가이(John Hoggai) 박사의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란 책에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한 네 가지 공식을 말했다. ①찬양하라(Praise) ②네 마음을 평정하라(Poise) ③기도하라(Prayer) ④평안을 지녀라(Peace) 산더미 같은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산더미 같은 불신앙 문제다. 불신 때문에 주님 찬양하지 못하고, 불신 때문에 마음의 평정이 깨지고, 불신 때문에 기도의 숨통이 막히고, 불신 때문에 영혼의 평화가 산산조각난다.

시 37:5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라" 했다. 내가 쥐고 있으면 그것은 내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맡겨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건강, 재산, 걱정, 염려, 불행, 고통, 현재, 미래, 사업 등 모두 다 맡겨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해주시고 책임져주신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때만이 나는 염려에서 해방될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바란다. 롬 8:28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였다. 세상만사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달렸다. 그러니 성도들은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만사가 합동하여 유익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려 보기 바란다.

nammicj@hanmail.net

### 핑크족 청년무슬림들 현실불만, 영웅심리서 비롯

(2면에서 계속)

반면 9-11 비행기 납치범을 포함해 무슬림 전통을 잘 아는 자폭 테러리스트들은 공격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한다. 머리와 콧수염, 턱수염을 단정하게 깎고 면도를 깨끗이 하며 목욕재계에 손발톱도 정성껏 다듬는다. 이슬람의 가르침대로 천국에 갈 때는 몸을 깨끗이 정화한다는 의미다. 이슬람에 정통한 자폭 지파는 이런 정결의식을 통해 알라에게 예를 갖추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믿는다.

벨기에 겐트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 리크 쿨세트는 최근 벨기에에 이처럼 이슬람을 잘 모르는 무슬림 극단주의 하부문화가 생겨나게 된 환경을 연구했다. 암울한 노동시장에 직면한 벨기에의 젊은이는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자살률과 고교 중퇴율이 높다. 그는 "벨기에의 청년 대표들은 최근 많은 젊은이가 활기와 희망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음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정보 분석가들에 따르면, IS 팬이 된 유럽의 무슬림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민간 정보분석·안보 전문업체 수관그룹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예민한 청소년 집단이 목적의식이나 소속감이 몰려다니는 곳

에선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IS에 포섭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무슬림이 IS 이념에 빠지는 현상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는 뜻이다. 감염자 곁에 있으면 같은 병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11월 안 앞본 벨기에 내



무장관은 브뤼셀의 이민자 구역인 몰렌베를 시리아에 다녀온 젊은 무슬림의 운상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브뤼셀 테러 수사가 곧바로 몰렌베의 용의자 추적으로 이어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정보 관리들은 누구보다도 그런 사실을 잘 안다. 벨기에 당국은 몰렌베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가 거주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1월 25일 유

로폼은 테러공격 위협 수위가 10년 만에 최고에 이르렀다며 대도시 심장부의 '소프트 타겟(일상 공간의 민간인)'을 노리는 공격 위협이 가장 큰 곳으로 프랑스와 벨기에를 지목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잘 안다고 해도 종교적 열성분자가 아닌 새로운 부류의 이슬람주의 팬이 감행하는 테러공격은 저지하기가 매우 어

렵다. 알카에다처럼 지휘체계가 확실한 조직이 아니라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갖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작은 세포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들 다수는 시리아에 가서 IS로부터 전술을 배운 뒤 귀국한다. 총과 사제 폭탄, 명성을 얻고 싶은 욕구만 있으면 '무저'가 친구와 동료 사이에서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세계는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들의 공격을 IS 소행이라고 몰아붙

인다. 지도부가 알지도 못했던 공격을 감행했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IS는 불우 청소년들에게 더 잘 먹히게 되고 그런 인기로 더 많은 팬을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알카에다를 상대할 때 필요한 군사전술과는 아주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이 단지 공습 같은 무력으로 IS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특정 구역(예를 들면 브뤼셀의 몰렌베) 공습을 원치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보다는 정보원과 위장 잠입을 동원한 수사과 유럽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적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허풍 떠는 정치인과 논평가들은 계속 무지하게 유럽의 '팍 지하다' 현상이 문명의 총돌이라고 외치고, IS가 통제하는 네트워크가 거대하다고 대중을 겁주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차분한 해결책을 무시하라고 말할 것이다. 지금 서방은 탐보가 되고 싶은 소수의 자국민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도 '액션 히어로'처럼 대응하려는 정치인이 문제를 악화시킨다.

사건설명: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와 관련된 용의자가 브뤼셀의 몰렌베에서 무장경찰에게 체포됐다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점차 필요한 것은 순수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들의 삶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며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세상의 그늘에 서있는 자들의 편에 가까이 서는 순수함이 회복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danielkmin@yahoo.com

## 시론

(2면에서 계속)

오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핍박과는 다른 것이다(눅12:51).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지만 생활이 나쁜 목사와 교계 지도

자들이 너무나 많다. 세상이 말하는 횡령, 사기, 학력 위조, 세습, 성폭행, 살인과 같은 대표적인 죄악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진 목사들의 죄악은 아닐지라도 많은 목회자들의 세속화와 부패지수가 심각하다. 지난 4월 9일은 110년 전에 로스 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날이다.

그날 그 시간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 자체가 타다 남은 부지깅이와 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응답하셨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 교회들의 지각변동을 일으켰었다. 교리적인 정통성의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입니다.

가정을 살리며 삶에 희망을 주는

# 가정사랑학교

## 어머니대학 제2기

## 아버지대학 수강생 모집

가정의 행복, 자녀의 성공, 부부의 사랑은 저절로 되어서는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현장! 어떤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일까요?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른 분은 꼭 오십시오.

**목적**

- 관계전도를 위해
- 가정의 회복을 위해
- 2세, 3세의 자녀 교육을 위해

**개강일** 2016년 4월 20일(수)-어머니 대학  
4월 21일(목)-아버지 대학  
오전 10시-12시 까지

**수강일정** 2016년 4월 20일-5월 19일(5주간)

**장소** 뉴욕즐거운교회 146-28 27th Ave. Flushing NY 11354

**신청문의** 917-669-0461, jungsook122@hotmail.com

**등록비** \$30(간식포함) \* 강의료 마친 후 도형상담 강의

**미주가정사랑학교** 대표 김정숙 목사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 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 왜그 더 독(Wag the Dog) 현상

지금 우리 고국에서는 20대 총선을 수일 앞둔 상황에서 8일과 9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총선을 전망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 어느 총선보다는 유권자들이 그간의 기독교 세력의 정당들을 심판하려는 수준 있는 한 표가 행사되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는 오늘 아침 목포에서 목회

하는 동생과 통화를 하면서 얻은 정보이기도 하지만 동생 목사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아무튼 동생과 긴 통화 가운데 '왜그 더 독'이라는 말이 나왔다. 내용은 얼마 전 전박계의 핵심인 윤상현의원의 막말과 관련하여 관심 받게 된 시사영어중의 하나가 '왜그 더 독'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먹혔다면서

유권자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레임덕 lame duck'과 함께 '왜그 더 독 Wag the Dog'이란 말은 정권 유지기간 동안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레임덕'이라 하면 '왜그 더 독'은 꼬리를 지나치게 흔들며 개의 몸통이 흔들리게 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사소한 일이 중대한 일을 결정짓게 한다는 뜻이다. 물론 미국 언론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우리 고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국에서 있었던 1992년 부산 '조원 복집 사건'이었다.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에 낙취록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내막은 이렇다. 당시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부산의 '조원 복집'이란 식당에서 김기춘 전 법무장관과 부산 지역 기관장들이 모였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당시 김영삼 민자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지역감정을 자극하자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 얘기를 몰래 듣고 있던 귀가 있었는데 당시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측이었다.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을 폭로하면서 김영삼 후보 측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런데 오히려 불법 도청이 역공을 받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면서 오히려 YS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결국엔 대선에서 승리를 했다. 사실, 요 6장에도 '왜그 더 독' 현상이 있었다. 예수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떡 문제에 매달려 살았고, 경제 문제만 좋아하면 인생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소망에 기대어 살았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영혼은 파멸해져갔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왜그 더 독' 현상이 유대 사회를 혼돈의 광야로 끌고 가고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벳새다 들관에서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한잔한 산으로 가셨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떡을 배불리 먹여주신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벳새다 구석구석을 다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자 배에 올라타고 가버나움까지 와

서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됐다. 이들이 예수를 그토록 찾게 된 이유가 뭘까? 요 6: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주 민감한 이야기를 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너희가 열정을 다해서 바다를 건너 나를 찾아온 것은 육신의 떡으로 배부르려는 충동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유대 군중은 겉으로 드러난 떡의 기적만 보았고, 오병이아라는 표적 속에 담긴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떡 중심의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신 것이다. 오늘 이 땅에는 '왜그 더 독' 현상이 너무나 많다. 특히나 기독교 신앙이 본질을 잃으면 변질된 신학이 나오게 되는데 물질이 심자기를 떠밀어내고, 감시즘이 기도를 대신하고, 정치학, 사회학 이론들이 말씀보다 앞서가고, 철학는 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치하는 '왜

그 더 독' 현상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결국 우리 사회는 점점 구원이 멀어지고, 인생의 본질인 생명의 떡 예수는 외면당하고, 비본질적인 육신의 떡, 경제만을 좇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마는 것이다. 심지어는 십자가가 표적이 되지 못하고 그저 세속적인 기적, 대박이나 불잡고 신앙생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사가 선지자도 'Wag the Dog' 현상을 이기라고 예언한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인생의 참된 배부름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으면 진정한 배부름을 얻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부디 '왜그 더 독' 현상을 이기고, 진정한 배부름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한다. umkyusu@gmail.com

# 푸 / 른 / 초 / 장

장영춘 목사  
(퀸즈장로교회 원로)



-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도
-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좋은 소식이 곧 복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 그가 하신 모든 사역에서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또한 복음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만일 '성경 중 어느 구절이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하였는

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값을 주고 복음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들으러 교회에 올 때 입장권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값없이 받았습니.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가져 받았습니. 복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하

고 있습니다. 복음은 골로새뿐만 아니라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열매를 맺어 자랐습니. 여기서 '온 천하'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제국 전체를 가리킵니다. 복음에는 왕성한 생명력이 있어서 전파되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1:16)라고 말했습니다.

를 깨달은 후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복음의 일군이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열매를 맺은 에바브라는 그의 고향인 골로새에 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골로새인들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바울은 7-8절에 '이와같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군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자니라'고 에바브라에 대해 말합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골로새에 갈 수 없는 바울을 대신해서 골로새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은 골로새 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이 따르더라도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한 모습을 본다면 복음의 일꾼들은 현세에서 크나큰 위로와 기쁨을 받을 것입니다.

## 복음의 열매 (골로새서 1: 6-8)

본문은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받은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을 바울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준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성령 안에서 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셨을 때 천사가 이르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2:10)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들과 함께 하심이 복음입니다. 어린이를 영접하시고 여인들을 해방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심이 복음입니다. 놀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가?'라고 물으면 그것은 바로 요한 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6절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

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 복음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옥도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복음에도 생명력이 있어 열매를 맺게 합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이 "너희 중에서도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말

복음의 능력은 초인간적인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 그 자체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죄와 구습과 옛 사람을 파괴해 버리고 우리 속에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새 생명을 싹 띄우고 자라나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일군 사도바울은 복음의 능력과 가치

우리는 모두 복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자라나도록 우리가 이 복음의 일군이 됩시다. josephyccchang@yahoo.com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Summer 2016 베들레헴(Bethlehem) 지역강의 안내

May 16-20(5월 16-20일)  
DI 8230 Cultures in the New Testament(신약에서의 문화)  
Dr. Matthew Harmo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 2016년 5월 졸업식

- 졸업식(Commencement Ceremony)**  
일시: 2016년 5월 7일(토) 오전 9시  
장소: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그레이스 대학 캠퍼스 내)
- 졸업 논문 발표**  
일시: 2016년 5월 5일(목) 오전 9시  
장소: William Male Center(신학교 건물)
- 총장주관 만찬(President's Luncheon)**  
일시: 2016년 5월 6일(금) 12:00-1:30 pm (졸업식 리허설 후)  
장소: Westminster Hall(웨스트 민스터 홀)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성전환자에서 정상인으로 돌아온 사람이 밝히는 “성전환”의 아픔과 실체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에서 “성전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이제는 미 전역의 공립학교뿐 아니라 정부발달등,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까지 남녀 함께 같은 시간에 혼용을 시키려는 이유가 정말로 성전환자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정치인들의 정치적 욕심을 위한 이유일까요?

이런 잘못된 정치적 이유를 받아들이고 있는 기업들과 학교들 중, 바로 지난주에는 덴버에 있는 Montview Preschool & Kindergarten에서는 겨우 4살밖에 안된 아이들에게까지 성전환과 동성애가 건강하고 정상적이라고 가르치는 일이 있어 학부모님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성전환자들을 위한다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과 삶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

들 대상으로 한 조사가 가능해진 것이었죠.

성전환 수술의 효과와 환자들의 결과는?

첫 번째 발표는 Dr. Harry Benjamin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는 성전환 환자를 위한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그들을 위한 호르몬치료와 성전환수술의 지지하고 자신이 직접 성전환수술을 실행하는 의사였습니다. Journal of Gay & Les-

는데요. 그 의미는 수술 후 짧게는 7-8년, 길게는 10-15년 정도는 나름 만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성전환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로, 1960년대에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고 신문에 나와 미 전역을 놀라게 했던 Walt Hayer는 자신의 선택이 절대로 가치있는 선택이 아니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수술한지 7-8년 후에 그는 상태가 더 악화됐기 때문입니

다. 그는 당시 정치적 측면에 맞춰가지 않고 오직 임상사례연구를 토대로 한 그의 솔직한 입장에 감사를 표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Johns Hopkins University Gender Clinic의 발표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 심리행동과 학협회의 사무총장이었던 Paul McHugh 의사는 그 당시 클리닉의 일장이었던 Jon Meyer 의사를 통해 그동안 치료받아왔던 성전환 환자들의 결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McHugh 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술 받은 환자들은 심리적인 아주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인간관계나 직장 내에서 수술받기 전과 같은 문제



### 성전환 수술로는 환자의 심리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수술 후 7-15년 즐길 수 있으나 결국 다시 심경 변화

저 우리는 성전환을 시켜주는 전문 의사와 성전환자들의 상담을 받고 있는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너무 숫자가 적어서 수년 동안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미 전역의 성전환자에 대한 확률이 CDC나 뉴욕타임스에서 전한 리포트는 바로 2011년 Williams Institute에서 조사한 것으로, 미 전역의 성전환자들이 0.3% 정도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http://williamsinstitute.law.ucla.edu/wp-content/uploads/Gates-How-Many-People-LG-BT-Apr-2011.pdf)

성전환생활을 하였다가 정상인으로 돌아온 Walt Hayer의 간증

1966년 10월 4일자 뉴욕데일리신문의 가십면에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남성이었던 한 여성이 맨해튼에 위치한 여러 클럽에 입장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녀는 볼티모어에 위치한 존홉킨스 클리닉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남자에서 “그녀”라고 바뀐 남자는 바로 Walt Hayer이었습니다. 13년 후 1979년에 이르러선 성전환수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만큼의 꽤 많은 성전환 시술이 이뤄졌습니다. 비로소 실제 환자

bian Mental Health 잡지에 따르면 1972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미국에서 수 천명이 넘는 많은 성전환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또한, 벤자민 박사의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Charles Ihlenfeld라는 의사는 동성애자(게이)로서 벤자민과 함께 일하는 6년간 500명이 넘는 성전환환자에게 호르몬 치료를 감행했던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500명이 넘는 성전환수술을 하다가 점차 성전환 치료결과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찰스 의사에 의하면 “수술 받은 사람들이 너무 불행해했어요. 결국, 수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했죠. 성전환을 하러 수술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 중, 제가 볼 때 80퍼센트의 사람들은 수술을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술의 적합한 나머지 20퍼센트 사람들의 경우에도 전혀 평판치 못하며, 성전환수술이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의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절대로 없다고, 자신이 그동안 수술시키고 그 이후의 결과들을 종합한 실례들을 얘기했습니다.

찰스의사는 성전환수술과정들을 일종의 ‘집행연기’라고 표현했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했는데, 마치 전에 그가 간절히 여자 되고 싶어했던 것과 같은 간절함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Walt Hayer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수술을 받았던 찰스의사에게 가서 전문 의사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는데, 찰스 역시 Walt Hayer와 동의했습니다. 찰스 의사는 500명의 성전환 환자치료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며, 성별을 바꾸고 싶은 욕망은 심리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라고 Walt Hayer와 같은 결론을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찰스 의사와 Walt Hayer는 그 이후, Paper Genders라는 책을 집필 중이었을 때 찰스의사와 통화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혹시 성전환수술에 관한 그의 견해가 달라진 건 아닌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찰스의사도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즘처럼 성전환에 대한 정치적 변화가 많은 가운데 동성애자 기도한 그가 성전환수술은 성전환을 갈망하게 만드는 심리적 요소에 대한 해결책이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고수한다는 것이 당시 Walt Hayer로서는 매우 흥미롭기도 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

들을 겪어야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죠.”

Walt Hayer는 2015년에 McHugh 의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그는 찰스 의사에게 건넸던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성전환 수술에 관하여 견해가 바뀌진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Paul McHugh 총장 역시 아직은 성전환수술은 의학적 정당성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변화에 치우치지 말고 의학적으로 밝혀지는 사실들을 토대로 의술을 행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거론된 찰스와 폴 McHugh 의사는 성전환 치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찰스 의사는 동성애 심리학자이고 McHugh 의사는 이성애 심리학자입니다. 두분 모두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전환수술은 환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동성애와 심리적 요소의 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이미 2016년 전에 일어났던 고대 사건인데요. 이 고대의 사건을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전도로 믿게 하려면 쉽지 않은 줄 압니다. 어떻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고대 사건을 현재의 우리에게 적용시켜 믿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LA에서 전 권사

A: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가셨습니다. 무덤에 가보니 무덤은 열려 있었고 큰 돌은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부활의 사실을 흥분하여 알렸을 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보여,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확실한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제자들에게 체험되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 신앙 사건화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종말에 나타난 메시아의 구원사건”(Salvation Event)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 성령의 중재로 2천년 전 부활사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여

은 이 과거의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16년 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것입니다. 즉 신앙사건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성령님의 중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사건은 2016년전 고대의 사건입니다. 우리와는 엄청난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이 고대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믿어지려면 성령님이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미국에 방문하였을 때 제 큰 아들 샘이 결혼해야 하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어느 장로님 딸인 아이리스와 연결이 되어 전혀 알지 못하던 남녀가 부부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중매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매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남남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로 연결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고대의 예수님과 현재의 우리를 연결시켜줍니다. 성령님은 하늘의 예수님과 땅의 우리들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감동 감화하시면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현재 나를 위한 사건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생명과 절대적인 관계에 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후에 성령님이 강림해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중매의 영이십니다. 전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여 고대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의심 없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신앙로회신학교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앙로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 동부개혁신앙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기니비소의 디올라(Diola)



디올라 종족은 넓게 흩어져 있다. 대부분이 아이보리코스트에 거주하나 더러는 부르키나 파소, 말리, 가나 그리고 기니비소 등지에 살기도 한다. 동부에서 기니비소로 이주한 경우도 있으며 1400년 경 포르투갈인들이 노예무역의 새 지경을 개척할 때 첫 번째 희생자들이었다. 기니비소는 1879년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면서 식민정부에 의해 노예무역의 전초기지가 됐다. 그러나 1950년대 아프리카 민족주의의 움직임으로 인해 독립전쟁이 시작돼 1974년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됐으며 해방 정부는 재빨리 대외적인 교역의 독점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디올라 종족은 상업을 통해 외부 종족들과 긴밀한 접촉을 꾀해왔으며 이것은 전사, 학자 또는 상인 등으로서의 개개인의 정체성을 찾던 이들에게 자기 가치를 부여해주었다. 디올라 종족은 주요 무역 언어인 디올라 Dyola(줄라 Julia)어를 사용하는데 Dyola 라는 뜻 또한 "행상"을 뜻

한다. 삶의 모습 디올라인들은 족벌을 형성하는데 족벌이야말로 이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면이다. 이들은 각자의 족벌에 대한 절대 충성을 보이며 긍지를 가지고 방어하며, 춤과 이야기 등의 구전을 통해 그들 족벌 역사와 헌신을 표현한다. 디올라 종족은 남녀 각각 진흙이나 시멘트로 만든 구별된 집에 살며 남자들은 원형의 집에, 여자들은 장방형의 집에 거주한다. 아버지는 가족의 우두머리로서 아들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며, 가족의 남성 연장자는 권력과 영향력을 소유하게 된다. 일부다처제가 여전히 성행하며 족벌 내의 결혼을 선호하고 보편적으로 여자들은 16세에, 남자들은 18세에 결혼한다.

촌락내의 보건 위생 상태는 매우 열악해 45세 이상 성인은 디올라 전체 인구의 13%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인구의 절반가량이 15세 미만이므로 노인, 특히 남자가 이슬람 학자일 경우에 대해 특별한 존경을 표한다. 디올라 종족은 1500년대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더러는 독립된 촌락을 형성했고, 이미 형성된 촌락에 정착한 부류도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특별히 구별된 지역에 거주했는데 이러한 습관은 오늘날 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디올라"라는 단어는 종족이나 문화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무슬림 상인을 전반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상인이나 사업가로서의 성공 외에도 이들은 가축 사육과 곡물 재배도 겸한다. 땅콩, 쌀은 이들의 주요 농작물이다.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수공업가로서 양질의 도자

기나 목공 제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디올라 사람들의 기본적 도덕률은 순종, 정직, 종족에 대한 헌신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율들이 이들이 가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앙 대부분의 디올라인들은 수니 무슬림들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무슬림들이 일컫는 "이교도"들로서 전통적인 정령숭배 신앙을 따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서아프리카 이슬람은 다른 이슬람에 비해 일반적으로 지역 전통을 인정하며, 지역 풍습의 다양성에 대해 보다 관용적이다. 이들의 종교적 신념은 기독교와 유사한 점이 많다. 영원하며 전지한 창조자로서의 유일신에 대한

믿음, 수호의 영들과 천사들의 존재, 성소 또는 지성소에 대한 관념, 의사소통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복잡한 관념을 설명하는 유추 등. 필요로 하는 것들 보건위생,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들이 부족하다. 이들과 어울려 살면서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의료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소수의 디올라 개종자들이 있으나 이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들은 거의 없다. 이 무슬림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많은 사역자가 필요하며, 전도를 위한 도구들이 마련돼야 한다. 기도는 이들을 복음화 하는 첫 번째 단계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존 파이버 목사 "남의 설교 베끼는 건 명백한 죄악"

"성도들은 남의 설교를 베끼는 목회자를 우려한다." 미국의 대표적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파이버(70·사진) 목사가 목회자들의 설교 베끼기를 이같이 꼬집었다. 파이버 목사는 4일 자신의 사역단체인 '디자인어릿'(desiring God·dG) 팟캐스트 방송에서 한 여성 신자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사이트에서 제공한 설교를 그대로 사용한다.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매우 그렇다. 성도들은 '중고(secondhand) 설교'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파이버 목사는 "진정한 설교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개인이 만난 하나님 말씀을 강한 트럼펫으로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설교는 하나님 목소리의 울림(echo)이어야 하지, 하나님 목소리의 울림을 또다시 울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미국에는 설교나 예화 자료를 판매하는 유료 사이트가 많다. 많은 목회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일부 목사들은 여기서 구입한 설교를 그대로 사용한다. 파이버 목사는 "남의 설교를 자신의 설교처럼 사용한다면 설교의 윤곽(outline)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며 "표절은 명백한 죄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교는 목회자가 생각한 것을 정리한 글이 아니다"며 "설교 역시 예배 행위의 하나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다루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전파하라"의 "전파하라(preach)"는 "가르치다(teach)"는 의미보다 "말해낸 것을 전달하고 환희하는"이란 뜻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설교란 '강해(expository)'가 아니라 '강해 환희(expository exultation)'라고 정의했다. 환희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자신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는 뜻"이며 "설교자는 말씀 앞에 압도돼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통해(through), 말씀 안에서(in) 예배한다"고 했다.

그는 "남의 것을 베끼는 설교는 교회 신자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다. 목사들은 자신의 양무리를 위해 말씀을 직접 연구해야 한다"며 "성경의 텍스트를 붙잡고 고민하라"고 덧붙였다.

파이버 목사는 2013년까지 미네소타주 베텔레헴침례교회 담임목사를 지냈으며 지금은 dG에서 다양한 신학·신앙적 문제를 강연하고 있다. 조너선 에드워즈와 존 오웬 등 미국 정교도 신학을 계승한 대표적 목회자로 꼽힌다.

####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 국가에서 확인됐다. 미국 종교전문 설문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최근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를 중시한다. 복음주의 개신교의 경우 여성들의 종교 성향은 남성을 완전히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퓨리서치센터는 △종교적 소속감 예배 참석 △기도 △일상생활에서 종교의 중요성 등 4가지 영역에서 전 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남녀간 종교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조사는 퓨리서치센터가 2008-2015년까지 전 세계 각국 자료를 종합한 결과다. 우선 종교적 소속감의 경우, 83.4%의 여성이 특정 종교에 소속돼 있었다. 반면 남성은 79.9%였다. 남녀간 3.5%의 격차는 인구수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9700만명 더 많다는 의미이다. 예배 참석과 관련해서는 종교별로 차이를 보였다. 기독교는 여성이 많은 반면,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남성이 더 높게 나왔다. 이는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남성이

들이 모스크나 회당 참석에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통 유대교의 경우 13세 이상 남성 10명이 기본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한 공동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슬람교는 금요일 정오 기도회에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이에 비해 여성은 모스크 내부나 외부에서 개인적인 기도 의무를 수행하면 된다.

기도 행위의 경우 84개국 중 43개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8% 더 많이 기도한다고 분석됐다. 이스라엘만 예외였는데 정통유대인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22% 더 많이 기도했다.

일상생활에서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84개국에서 남녀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36개국에서는 여성이 더 많이 나왔다. 이스라엘과 모잠비크는 남성이 더 앞섰다.

기독교의 경우 여성이 모든 측정 기준에서 남성보다 앞섰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한다'에 대해 여성은 53%, 남성은 46%로 나타났고, '매일 기도한다'는 여성 61%, 남성 51%. '일상생활에서 종교가 중요하다'는 여성 68%, 남성 61%. '천국을 믿는다'는 여성 91%, 남성 89%, '지옥을 믿는다'는 여성 78%, 남성 76%. '천사를 믿는다'에 여성 88%, 남성 84% 등으로 분석됐다.

#### 선교사 순교 '워털리프' "중동지역 성경 현지번역 계속"

지난달 중순, 중동 A국의 한 사무실. 갑자기 총을 가진 괴한들이 들어닥쳤다. 침입자들은 직원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사무실에 있던 책과 장비도 파괴했다. 장비 중엔 '주문형 출판(POD·Print On Demand)' 기계도 포함돼 있었다. 사무실은 중동 지역의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미국 워털리프협회(WA) 소속 공간으로 경험 많은 성경번역 선교사들이 자료를 살피던 중이었다. 4명의 선교사가 순교했다.



5일 미국 크리스챤투데이에 따르면 WA는 앞으로 중동에서 10개의 새로운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할 계획이다. WA 브루스 스미스 대표는 "성경 번역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위험이 따르더라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해는 곧 기독교 복음을 확산시키는 밑줄이 되기도 한다"며 "1866년 한국에서 가톨릭 선교사들이 학살당하고 1956년 예과도르에서 5인의 미국 선교사들이 순교한 이후 두나라는 복음이 밀물처럼 전파됐다"고 말했다.

성경번역 선교사들은 최소 10년 이상 현지에서 머물며 번역 작업에 임한다. 현지인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성경을 번역한다. 이 과정에서 현지 크리스천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생생한 현지어와 문화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난 곳 방언'(행 2:8)으로 번역된 성경은 복음 전파를 확산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현재 중동 지역 성경 보급률은 펄박 속에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성서공회(UBS)에 따르면 시리아의 경우 2011년까지 1만9000권이 보급됐으나 2012년에는 758% 증가한 16만3105권의 성경이 배포됐다. 이라크 역시 2011년 2만8518권에서 2012년 6만6175권으로 132% 증가했다. 이집트는 226만1236권(2011)에서 282만4504권(2012)으로 배포량이 늘었다. 중동 외에 라오스는 7985권(2011)에서 2만743권(2012)으로 159% 늘었고 인도는 2279만권(2011)에서 2722만467권(2012)으로 19% 증가했다.

#### 믿음이 무엇인지 답주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

무신론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다룬 미국 할리우드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에 나오는 성경구절과 명대사가 주목받고 있다. 이 영화를 수입한 에스와이코마드는 11일 페이스북(facebook.com/symovie)에 미강력계 형사 출신으로 이 영화에 특별 출연한 J 윌리엄스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영화에서 "성경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기록이다. 이로써 내 인생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사복음서를 연구하다 신앙을

갖게 된 그는 예수가 십자가를 진 채 희롱당하는 장면(마 26:67-68, 눅 22:63-65)을 예로 들며 "사복음서는 경험에 따라 써졌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마태와 누가 같은 경험을 다르게 묘사한 부분이다.

주인공 그레이스(멜리사 조앤 하트분)의 제자 브룩은 오빠가 남긴 성경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를 보고 신앙에 눈을 뜬다. 그레이스는 수업 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5:44)는 예수의 발언을 인용했다가 제소 당한다.

그녀는 타협을 권유하는 변호인 톰을 향해 "주님의 편에서 세상의 심판을 받겠다. 주님께 등 돌린 채 세상과 타협하기는 싫다"고 역설한다. 주인공은 신앙을 갖게 된 계기를 질문 받는다. 그레이스는 한 교회 외벽에 적혀있던 성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16:15) 때문이라고 한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다.

데이브 목사는 재판의 성공을 기원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말한다. 영화사 관계자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영화 속에 인용된 성구와 대사를 통해 맞춰보는 재미가 있다"고 전했다.



#### 노르웨이 국교회, 동성결혼 인정

노르웨이 국교회가 압도적 다수로 동성결혼을 인정하기로 11일 결정했다. 노르웨이 국교회 총회에 참석한 대표 115명 중 88명이 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국교회는 내년 회의에서 동성 부부가 교회식으로 올리는 혼인 예식에 관한 조항을 채택해 이를 공식적인 예배 의식에 포함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날 결정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동성결혼 집행(성직자나 목회자 등이 전례나 예배 등을 집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결혼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변경하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노르웨이 국교회는 루터교 교회로, 국왕은 헌법상 이 교회 교인이어야 한다. 이 나라 국민 510만 명 중 70% 이상이 국교회 신자로 등록돼 있다.

#### 민주화 시작된 미얀마, 기독교인 권리는 되레 약화

소위린 미얀마교회협의회 총무는 11일 "미얀마에서 군 부독재가 종식된 뒤 종교적, 인종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며 "지난 4년간 개방의 바람이 불었지만 기독교인 등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는 더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울 하반기로 예정된 제2차 한·미얀마교회협의회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차 한국을 찾은 소위린 총무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얀마교회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50년 넘게 독재와 내전을 겪어온 미얀마는 역사상 최초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생력을 맞았다"며 "하지만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탄압과 차별이 진행되고 있어 인종문제 해결과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얀마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 각자의 종교와 종족별로 마을을 구성해 사는 다인종 다종교 사회다. 그는 '마바타(MA BA THA)'라는 불교 근본주의 그룹이 기독교에 매우 공격적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미얀마의 전통과 언어, 불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졌다. 여성 불교신도들은 타종교를 가진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교보호법 제정 등에 앞장섰다.

소위린 총무는 "미얀마의 복합적인 인종, 종교의 문제는 밖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하

다"며 "이런 부분이 향후 민주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얀마 인구 중 불교도는 85%, 기독교인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쳐 7-8% 정도로 추산된다.

소위린 총무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이끌어 온 아웅산 수지 여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2011년 제1차 한·미얀마교회협의회를 개최했을 때는 수지 여사와 한국 대표단의 면담도 주선했다.

소위린 총무는 "미얀마는 종족마다 자기 언어로 말해 소통이 어려운데, 한국은 민주화운동 때 쉽게 의사소통하며 조직화를 잘 해온 것이 부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미얀마의 새 정부가 국가적 화해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통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힐러리-트럼프, 승부처 뉴욕주서 두자릿수 압도적 우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의 승부처로 꼽히는 오는 19일 뉴욕 주 결정전에서 압도적 우세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뉴스가 지난 4-7일 민주당과 공화당 성향 유권자 각각 801명과 6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양당 모두 선두 주자가 두자릿 수의 격차로 2위 주자를 따돌렸다.

뉴욕 주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291명과 95명의 대의원이 걸렸다. 공화당은 부관 승자 독식제로 치러져 승자가 사실상 대부분의 대의원을 가져간다.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53%의 지지율을 얻어 37%에 그친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을 크게 앞섰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54%의 지지율로 압도적 선두를 달렸고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가 22%로 2위를 차지했다.

뉴욕 주는 클린턴 전 장관이 2001-2009년 상원의원을 지낸 '뱀발'이다. 여성과 비(非)백인이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하고 남성들은 샌더스 의원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54%의 지지율로 압도적 선두를 달렸고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가 22%로 2위를 차지했다. 트럼프를 위협하고 있는 2위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15%로 3위에 머물렀다.

이 조사에서 트럼프는 남녀, 소득, 교육 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영역에서 다른 주자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뉴스는 전했다.

#### "미 공화당선후보, 정 어려우면 퇴역장성 '징집'이라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이 후보 지명을 위한 관련 대의원을 확보하는 유력한 주자 없이 중재 정당대회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선거 국면 동력 상승과 대선 승리를 위한 비상조치의 하나로 인지도 높은 퇴역 장성들을 후보로 '징집'할 수도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유명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워싱턴포스트 11일자 칼럼에서 현재 대의원 확보 수에서 1, 2위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테드 크루즈 두 후보 모두 지명에 필요한 과반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화당의 '깜짝 카드'로 제1차 매티스 전 중부사령부(CENTCOM) 사령관 등 전역 장성 4명과 전직 하원의원 등 모두 5명을 후보군으로 제시했다.

매티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스탠리 맥크리스털, 마이크 말린 및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다. 또 장성 출신은 아니지만, 하원 정보위원장을 지낸 마이크 로저스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공화당이 대선을 위해 징집할 수 있는 5명의 군 지휘관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그네이셔스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다.

한국전쟁 장기화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재선 포기 등으로 공화당의 인기자 군두박질한 1952년 대선 당시 공화당 지도부가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 위기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 중의 한 명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원수를 설득해 후보로 내세워 승리한 전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투고 칼럼



시니어즈블레스라이프 원장 김병호 목사

노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텔로미어(telomere)라고 한다. 텔로미어란 염색체 양 끝에 있는...

로 바라보는 49세의 나이는 너무 젊은 나이이다. 평균수명 80세로 접어든 현재 시대는 어쩌면 진시황에게는 불로초의 시대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것이 산업사회 이전에 태어난 어른의 평균 수명이 고작 40세에 불과했다. 그런데 현대에는 한발 꿈으로만 여겨졌던 장수사회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

교회 구성원들이 늙어가고 있다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

최근의 실험실적 연구에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임으로써 생명의 수명을 연장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런 이론이 현대의 인류에게 불노조를 안겨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최근 텔로미어에 대한 임상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무엇이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지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들을 열거하는데 이중 천년 가까이 살았던 므두셀라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무려 969세까지 살았다. 이런 장수의 이야기는 중국에서는 삼천갑자 동방삭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오래 사는 것은 아마도 모든 인간의 공통된 소망일 터이다.

있고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다. 므두셀라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요셉까지는 충분하겠고,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나이까지도 바라보는 것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텔로미어의 임상 실험 단계가 많이 진척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우리의 수명은 지금의 통계에서 보도 하는 것보다 훨씬 수명이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불로초를 갈구했던 진시황이나 영생불사약을 만들려고 골몰했던 연금술사들의 이야기는 다 이런 소망의 발로라 하겠다. 그도 그럴

지금 일본 사회에서 매출 성장 이 때면마다 100% 이상 성장하는 제품들이 노인들을 위한 상품이라

고 한다. 예를 들어 성형에 필요한 제품들이나 미용, 음식, 입는 것 더 나아가 일회용품 등 다양하게 노인에게 관련 제품들은 폭풍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수명 연장이 기쁜 일임에는 확실하지만, 반대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황혼 이혼, 외로움, 자살, 치매 등등, 또한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인 범죄 또한 부작용 중에 하나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진시황처럼 든든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 '장수'가 축복이겠으나 준비가 부족한 땅은 사람들에게 장수가 곧 기쁨이 되는 시대는 아닌 것이다.

한국에서 2014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노인 빈곤율이 48.1%에 이르고 있다. 노인 두 명 중 한명은 빈곤층이라는 이야기이다. OECD 평균 1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가톨릭 주교회의가 발표한 '한국 천주교회통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신자가 모두 75만 명으로 전 신자의 14.6%에 해당한다고 한다. 개신교의 경우 연령별 통계가 조사돼 있지 않지만, 가톨릭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헤럴드에 의하면, 2012년도에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11.8%보다 훨씬 높다는 수치이다. 2019년에 이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한국사회보다 훨씬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에 따라 노인 신자들을 위한 노인 목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기독교의 대책은 너무도 미흡하기만 하다. 유럽은 말할 것도

다. 이에 교회의 중직자들과 각 교회가 먼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회의 사회봉사' 그 실태와 대안에서 한국교회가 소명을 가지고 꼭 수용해야 할 사회봉사사업-우선대상으로 영유아 16.8%, 아동 8.9%, 청소년 36.1%, 노인 63.2%, 여성 4.1%, 장애인 42.5%, 특수소외계층 27%로 조사되었다.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대상 현황은 아동 42.1%, 청소년 4.8%, 청년 4.4%, 노인 38.5%, 장애인 4.0%, 지역사회 8.8%, 방문지원 74.7%(시설, 교도소)로 노인에 대하여 교회가 수용해야 할 사회봉사 사업으로 우선대상자로 여기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들의 문제를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 최순남(신학연구 25호 p.385)은 7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1)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노인들의 불안감, 자선 없음, 죽음의 공포, 젊은 날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등 노인의 영적 필요에 합당한 계획수립해야 한다. 3)전 교인들에게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교육수립 해야 한다. 4)세대 간의 사회적, 영적, 사교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제공 해야 한다. 5)노인들의 물리적, 신체적 필요에 대해 민감한 대처해야 한다. 6)정부와 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 7)노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교회활동에 참여시켜 주어 야 한다.

bhkim0691@gmail.com

아하 그렇구나! -성경의 압축과일 풀기 (29)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회개와 회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2:38).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된 죄에 대해 회개(repent)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원래의 뜻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고 하는 말이다.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metanoia)인데,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회개(repent)의 의미가 아니라, 회심(conversion)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회심과 회개는 다르다. 회심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잘못된 구체적인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심한 순간에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회심한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 있다. 회심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끊임없이 평생 동안 회개를 통해 성화되어가야 한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입술로만 회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회개하고도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뿐인 회개 하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회개하고도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뿐인 회개 하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회개하고도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뿐인 회개 하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회개하고도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뿐인 회개 하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회개하고도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뿐인 회개 하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회개하고도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뿐인 회개 하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회개하고도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뿐인 회개 하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jnhlee1004@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the East (NY, NJ) region. Includes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and '하와이 및 북미 지역'. Lists various churches with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 리더십 코멘터리 (13)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 Excellent Communicator

킹스 스피치, 국민과 대화와 소통을 나누다

영국 왕 조지 5세는 둘째 아들 요크공작에게 폐막연설을 대독시켰다. 당시 대국민연설은 몇 년 전 첫 방송을 시작한 당시의 신기술인 라디오를 통해 처음으로 생중계 되고 있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는 "저는 오늘 친애하는 국왕께...페...하...페..."만 반복된다. 그리고 요크공작의 연설을 들으려던 이들은 모두 실망한다. 연설의 주인공은 엘리자베스 현 영국 여왕의 아버지이자 '말더듬이 왕'으로 유명한 조지 6세이다. 조지 5세는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새로운 미디어로 각광받던 라디오를 매개로 입헌군주제의 구심인 국왕의 권위를 각인시키려다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킹스 스피치'(The King's Speech)는 어린 시절의 콤플렉스(complex)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만 서면 말을 더듬는 요크공작이 말더듬증을 극복하고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

하지 않는다. 최근의 소셜 미디어는 리더와 구성원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세 번째 요소는 포용(Inclusion)으로 직원들의 직무를 확대시켜주는 것이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일에 주인 의식을 갖고 폭넓게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것이다.

네 번째는 소통의 의도(Intentionality)이다. 위의 세 가지가 정보와 아이디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였다면 의도는 이를 실제로 가지기 위한 대화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모든 대화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지시를 전달하지 않고 비전을 공유하고 왜 해당 업무가 필요한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명확한 의도와 목표는 조직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의사전달의 원칙

신보다 더 신뢰감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4. 반응을 구하라.  
의사전달을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의사전달의 목표가 행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막연히 사람들에게 한 무더기의 정보를 무더기로 쏟아 붓는다면 그것은 의사전달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 마다 그들이 느끼고, 기억하고, 행할 원칙을 주어야 한다.

의사전달 능력의 배가를 위한 원칙

- 1. 명확하라.**  
편지든 메일든 최근에 자신이 썼던 것을 살펴 보아라. 문장이 짧고 간결한가 아니면 만연체로 가득찬가? 글을 읽는 사람들이 사용된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최고의 친구는 바로 간결함과 명료함이다.
- 2. 관심을 확인하라.**  
커뮤니케이션에 임할 때에는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라. 청중에게 과연 관심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질문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을 생각하라.
- 3. 메시지대로 살아가라.**  
자신의 언행은 항상 일치하고 있는가? 믿을 수 있는 몇몇 사람을 만나 자신이 말한 대로 살고 있는지 물어보라. 배우자나 스승이나 친한 친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일체의 변명 없이 그들의 지적을 받아들여라. 우리의 삶속에 이러한 변화를 꾀하는 목적은 일관성을 더하기 위한 것이다.

#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 준비한 만큼이 사랑이다

'준비 됐나요?' '준비 됐어요' 어린 시절 유치원에서 날마다 선생님과 주고받던 말이다. 그렇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많은 것 같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스승이 저절로 나타나고 제자들이 따라오며, 준비된 사람에게는 일거리들이 쌓이며, 준비한 만큼 사랑이 찾아온다. 상한 심령들이, 막힌 가슴들이, 묶였던 손발이, 닫혔던 입이 썩어지고 툭리고 풀려나고 열리는 치유와 회복도 어쩌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의 몫이리라.

사람들은 대개 어느 순간에 성장하기를 그만두는 것 같다. 키가 어느 날 크는 것을 멈추듯이...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고 안일하게 삶을 사는 동안엔, 삶은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 앞을 지나쳐치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의 길 사람은 부패해간다 해도 끝까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데 말이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가파르고 힘든 고갯길을 살아내는 일이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력한다. 풀과 나무들도 무표정하고 태연해 도, 크고 작은 나무들이 겨우내 땅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새봄의 싹을 내기 위해 인내하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리라.

TV 프로 중에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가 있다. 한 가지 일을 오래하다 보니 그 방면에 달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중국에 가서 조선훈 사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사모님이 내게 '사모님은 사모 짓을 얼마나 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지금 돌아보니 이 것(?)을 30년이 넘게 했으니 이제 좁은 사모의 달인(?)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누가 돌을 던져도 실실거리며 맞고주고, 척 하면 삼천리로 성도들의 필요들을 알아서 채워주며, 가는 곳마다 화해를 만들고 상하고 마음이 다친 사람들을 적절히 치료해주는... 그래서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후덕한 아줌마의 모습으로 사모의 달인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도 새벽기도 알람소리를 듣고도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자아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내가 힘드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아픈 대로 놔두는 눈가림의 몸짓들, 심방가야 할 곳을 아침마다 수 없이 적어놓고 하루를 시작해도, 어느덧 하루를 마감할 때 보면 잊고 지나간 일들이 수도룩하고... 입술에는 사랑을 달고 다보면서도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게으름과 거짓, 미움, 회한... 이런 것들로 아직도 꽂혀 있는 나인데... 어쩌지 달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다.

사모는 사역을 잘 하고 강의를 잘하는 것보다 내면의 영성과 훈련된 신앙인격을 가질 때 '바보'가 된다. '바보'란 여러 가지 의미를 불일 수 있다. '바보 보는 사람' '바라보아도 보고 싶은 사람' '바나바처럼 보배로운 사람' '바닷 속의 감춰진 보물들'...

생수와 같이 때에 맞는 말을 하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사모, 주인이 주연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모, 향유에 담긴 옥함이 깨져야 온 방안이 향기로 가득하듯, 자아가 깨져서 온통 예수의 향기로 진동하는 사모, 늘 한 발 앞서서 남편과 성도들의 필요를 준비하는 사모, 무엇보다 인생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기위해 하나님께 아무 무릎 꿇는 사모, 행복 표를 아예 예약해놓고 다가올 행복까지 묵상하며 사는 좋은 취미를 가진 사모... 이렇게 준비된 '바보'가 되어야 잠깐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삶을 그저 흉내라도 내며 살 수 있을 텐데....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할 일이 쌓여있는 날에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때가 있다.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비상을 하고 싶은 때이다. 문득 내 나이가 너무 많다고 느껴질 때라도, 보이지 않는 먼지가 창에서 쌓이는 것처럼 우리를 마음속에도 마음의 먼지가 쌓여서 진심이 퇴색 되지 않도록, 작지만 좋은 습관들을 계속 만들어 가자.

(10면으로 계속)

## 단순 명확한 메시지, 이해와 관심, 언행일치로 대화리더십 구축 커뮤니케이션의 근원은 하나님... 영적 권위가 대화기술보다 우위

키는 연설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차분하게 스크린에 담았다. 영화는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말더듬증을 치료하는 과정에 밀착하면서 요크공작과 평민 언어치료사의 신분을 뛰어넘는 두 사람의 우정에 주목한다. 소통은 기교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을 두 사람의 우정이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줄 아는 '소통의 진정한 성'을 대전제로 한다.

리더로서의 탁월한 의사전달방법의 개발은 유능한 리더십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리더는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긴박감과 함께 열정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1. 메시지를 단순화시켜라.**  
의사전달은 단지 말하는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을 뜻하는 것이다. 어떤 교육자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효과적인 의사전달의 열쇠는 지극히 간단함에 있다.
- 2. 사람을 이해하라.**  
뛰어난 의사전달자는 자신과 대화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청중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개인이 건 단체이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때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 나의 청중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질문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가? 더 뛰어난 의사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중 지향적이 되어야 한다.
- 3. 진실을 보여주어라.**  
신뢰감은 어떤 의사전달보다 우선된다. 청중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사는 것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확

대화의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4가지 요소

세계화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상명하복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보리스 그로이스버그와 소통 컨설턴트 마이클 슬라인드는 대화의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 가지 요소(4I: Intimacy, Interactivity, Inclusion, Intentionality)를 제안한다.

소통하는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친밀감(Intimacy)이다. 조직 구조, 태도, 혹은 물리적 거리까지 좁히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첫걸음이 된다. 평소엔 조직구성원이 자유롭게 리더에 다가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두 번째 요소는 쌍방향 소통(Interactivity)이다.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to) 이야기를 하지 구성원들과(with) 이야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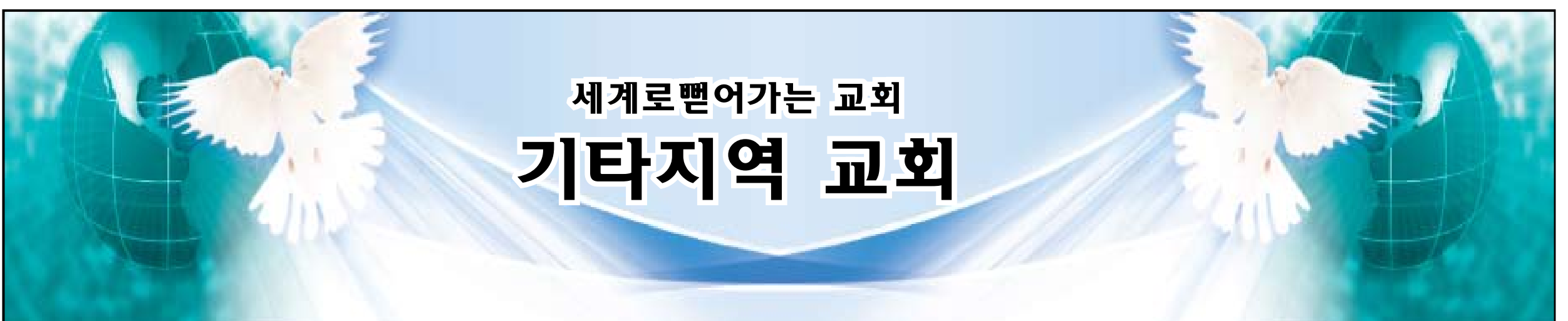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 출 4:14 - 이 말씀은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다. 입이 어눌했던 모세가 애굽에 가기를 꺼렸을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잘하는 아론을 대변인으로 불러주셨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언어적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두 가지를 깨닫는다.

첫째는 영적 권위가 기술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우위에 선다는 것이다. 아론이 모세의 형이고 또 모세보다 더 말을 잘 했으나 그 커뮤니케이션의 주도권은 모세에게 있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 하는 것, 모세가 아론에게 준 말을 아론은 대신 받아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커뮤니케이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선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입에 늘 함께 하사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말할지도 알려 주신다는 것이다. 즉 형식(form)뿐만 아니라 의미(meaning)까지도 책임져주신다. 하나님에게 기도 미디어는 곧 메시지인 것이다.

sondongwon@gmail.com



<p><b>갈보리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몽고메리교회</b></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월-금)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종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b>벤엘교회</b></p> <p>담임목사: 백신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b>보스턴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전덕영</p> <p>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종교문화예배: 오전 10시 (영) 오전 11시 (영) 평일, 유년부: 오전 10:0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b>살롱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새시온침례교회</b></p> <p>담임목사: 정용교</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b>시애틀평안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apocseattle.org</p>	<p><b>안디옥교회</b></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p>	<p><b>알칸사 제자교회</b></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rhjas.com</p>	<p><b>앵커리지델린문교회</b></p> <p>담임목사: 유제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b>엘파스델린문교회</b></p>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교회.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b>영생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이용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b>킬린온누리교회</b></p> <p>담임목사: 김성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letranz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주예수교회</b></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수요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nmcc.org</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양과 염소

교인 수 1만 명의 미국의 대형교회 근처에서 한 노숙자가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인 중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온 사람은 3명에 불과했고, 초췌하고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맨 뒷좌석에 겨우 눈치를 보며 앉았고,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스티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교인들은 모두가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를 찾아 일제히 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 모든 성도 들은 경악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 갔고...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염소'의 비유로 누가 양과 염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티펙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무언가에 심하게 얻어맞은

듯 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티펙 목사는 이날 오전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교회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뜨끔합니다.

인도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앤드류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고, 마침내 마음이 움직여서 어느 날 주일에 백인교회에 나왔지만, 강마르고 남루한 유색 인종이란 이유로 문 밖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디에게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간디는 그때마다 임버릇처럼 같은 말로,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간디가 그날 백인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 10억이 넘는 인도가 기독교 국가로 변해 있지 않았을까?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드류신학대 부총장)는 한국교회가 "예수 결핍장애'(JDD: Jesus Deficit Disorder), 즉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속문화에 동화되어 물질만능, 권위와 명예주의, 학벌과 인맥, 지방색을 강조하는 한국 교회의 실상을 지적했다고 봅니다.

아고보서 2장1-4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도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는지 내 발등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모인 교회와 불신자들의 사회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대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고, 갇히고, 놀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릴 양입니까? 지옥의 영원형벌을 받을 염소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개와 성찰, 변화와 갱신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개와 변화가 없는 교회에는 아무리 큰 대형교회라도 '예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Example of Christ' 주제

제34회 HYM청년연합집회 성료

제34회 HYM청년연합집회가 'Example of Christ' 주제로 9일과 10일 양일간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에서 열렸다.

첫날 설교를 맡은 민승배 목사(페이츠펠 조은교회)는 '네 신을 벗으라'(출3:5)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재물로 창조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한다.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당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핏 값으로 우리들을 사셨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제34회 HYM청년연합집회를 마치고 스태프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지만 그것이 없으면 그저 처한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남 목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며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둘째 예배를 회복하라. 셋째 복음의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힘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어나길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제34회 집회는 첫날 대흥장로교회 찬양팀(인도 최명진 전도사)가 찬양인도했으며 둘째 날은 HYM 찬양팀(인도 국중현 형제)이 했다. 또 첫날 봉헌기도는 이대명 목사(대흥장로교회), 둘째날 봉헌기도는 최정국 전도사(토기장이교회)가 맡았으며 특송은 첫날 손석민 형제(베데스다순복음교회), 둘째 날은 LOG미니스트리에서 맡았다.

한편 35회 HYM집회는 10월경에 열린다. (박준호 기자)



어린이전도협회 2016 VBS 및 어린이선교 컨퍼런스가 세계아가페선교회에서 열렸다



LA기윤실 주최로 열린 '이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획 세미나에서 김동문 선교사가 강의하고 있다

"이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LA기윤실 기획세미나, 강사 김동문 선교사

LA기윤실(대표 허성규)이 주최한 기획세미나 '이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7일 오후 7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대학교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세미나 강사로는 1990년 11월 이후 이집트와 요르단 등 아랍 이슬람 지역에서 지내며 하나님나라를 개척하고자 노력해온 김동문 선교사가 나서,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슬람에 관한 '괴담'들이 퍼져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균형 잡힌 이해와 상식을 제시했다.

김동문 선교사는 "이슬람을 경계해야 한다며 SNS를 통해 소개된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은 낱조된 것들"이라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기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당교수를 처형하겠다는 이야기는 낱조된 것이다. 무슬림들은 사원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기도할 때 소리를 거의 내지 않으며, 학교에서 교수권이 존중돼 개인 또는 집단의 기도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교수의 이메일로 협박메

일이 전달됐다고 하는데 세상 어느 학교도 외국인에게 교수의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2015년 12월 하순 사우디에서 일어난 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다는 이유로 무슬림에게 한쪽 눈과 입을 바느질한 잔혹한 일을 겪었다는 소식이 있다. 이는 믿음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닌 2012년 9월 26일경 온라인상에 돌던 일본의 새로운 유행을 소개하는 글에 담긴 자료화면이었다. 이는 일본과 관련된 사진을 사우디에서 기독교인 박해증거 사진으로 오용된 것이다. 이런 일들은 비밀비재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교사는 "사랑과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악성괴담의 결과는 우리 영혼을 혼탁하게 하며 혐오감만 크게 만든다. 괴담의 물결은 성경의 역사가 아닌 사교이며 위상송배다. 비판은 정당해야 한다. 정당한 비판이 있을 때 상대방과 토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맹목적인 비호나 반대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어린이전도, 세계복음화 앞당기는데 가장 효과적"

어린이전도협회 2016 VBS 및 어린이선교 컨퍼런스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2016 VBS 및 어린이선교 컨퍼런스를 9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세계아가페선교회(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열었다.

여병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믿기 쉽고, 잘 받아들이는 어린이를 놓치면 세계복음화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좁아지게 된다"고 말하며, "어린이, 청소년 선교야말로 현재와 미래의 지구촌 복음화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자 온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는 가장 효과적인 최선의 선교전략"이라 강조했다.

여 목사는 "순수한 어린이들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예수님을 심어주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가득 채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인 복음의 깃발 들고 땅끝 선교를 위해 승리를 이룰 주님의 군병으로 한창게

달려가도록 가르쳐야 할 사명이 교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스승해로운 교회학교 예배찬양 △과학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다루기 힘든 어린이를 위한 훈육 △어름성경학교 찬양과 율동 △재미있는 요절암송과 적용 △어린이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 △유아, 유치부를 위한 예배찬양 △VBS를 위한 다양한 창작활동 아이디어 △분반공부를 통해 믿음의 씨앗심기 △어름성경학교 준비와 진행을 위한 완벽한 플랜 △어름성경학교, 캠프, 선교를 위한 드라마 아이디어 등의 주제로 강사가 진행했다. (박준호 기자)

"코리언아메리칸 자긍심 갖고 빛과 소금 역할 감당"

미주한인재단LA 제9대 이병만 회장 이취임식

미주한인재단LA는 제9대 회장 이취임식을 5일 오후 6시30분 아로마센터 5층 뱅킷룸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 재단 9대 이병만 회장은 취임사에서 "미주한인재단은 한국의 자랑스런 문화와 예술을 알려 코리언아메리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참립된 재단이다. 그 취지에 걸 맞는 재단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진 부회장과 케런 리 차세대 의원의 사회로 열린 이취임식은 김성용 미주한인재단USA회장의 개회사 및 인사에 이어 테너 오우영 목사



미주한인재단LA 회장이취임식에서 이병만 회장이 김성용 미주한인재단 전국총회장으로부터 취임패를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가 미국국가와 애국가 불렀으며 애국선열에 대한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종용 목사(미주한인재단 자문위원장, 코너스톤교회)가 격려사를, 척립 한미동맹협회 회장의 축사를, 로버트조 사무총장이 대독했으며, 마우진 평통수석부회장, 김경진 목사(나성영학교), 김병선 북미주강원총연합회 회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정동철 전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정동철 미주한인재단LA 직전회장에 공로임패를 증정했으며 정동철 전회장이 이임사를 전했다.

또 이병만 신임회장에게 취임패를 증정했으며 이병만 회장이 취임사를 전했다. 취임사에 이어 송병주 목사(미주한인재단 지도위원, 선한정치교회)가 '미국 한인동포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연을 했으며 박선영 자매가 특송했다.

또한 이병만 회장이 본 재단 집행부 소개 및 인사 후 엄규서 목사(삼가주목사회장) 등이 덕담 및 권면을 했다. (박준호 기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총신 대학교 신학대학원.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el: (213)386-0300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정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DYNAMICS 다이나믹스.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힐링캠프 기도원. 이전자 목사. 심과 회복이 있는 기도 동산.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 동부교계 게시판

# east

### 이단대책세미나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회장 유상열 목사)가 주최하는 이단대책세미나가 목회자 및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4월 28일(목) 오전 10시30분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한선희 목사(세계한인이단대책위원회 상임위원,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회장)로 주제는 이단의 정체성과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구원파 등.

▲문의: (718)279-1414, (917)862-0523

### 제 2기 어머니/아버지 대학 개강

미주기정사랑학교(대표 김정숙 목사)가 주최하는 제 2기 어머니대학 아버지대학이 수강생을 모집한다. △관계제도와 △가정의 회복 △2, 3세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어머니대학: 4월 20일-5월 18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 △아버지대학: 4월 21일-5월 19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정오. 장소는 뉴욕즐거우교회(146-28 27Ave Flushing)이며 등록비는 30달러(간식 포함).

▲문의: (917)669-0461

### 북미원주민 단기선교단 모집

북미원주민선교회가 단기선교단을 모집한다. 선교지는 미네소타, 미시간, 위스콘신 내 9개 지역으로 참가인원은 300여명, 참가자격은 영어권 청소년 및 청년과 장년. 선교기간은 7월 31일(주) 오후 3시 출발해서 8월 6일(토) 밤10시 도착예정이다. 훈련기간은 6월 5일-7월 24일 8주간 매 주일 오후 5시30분-8시 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일인당 450달러.

▲문의: (310)408-1858 이재봉 목사, (917)648-6659 Sam Lee 목사

### 스마트폰 강좌

씨준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 초급반(57기)과 중급반(56기)가 뉴욕기독교방송국(163-07 Depot Rd. #B-2 Flushing) 세미나실에서 개강한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뉴욕기독교방송국 사장). 초급반: 4월 23일-5월 7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2시30분 △중급반: 4월 21일-5월 5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0분-3시 50분.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폰, LG폰) 위주로 강의하지만 아이폰 소지자도 들을 수 있다. 선착순 접수. 수강료는 무료, 등록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국을 선교 후원한다.

▲문의: (347)538-1587

### 사역자 청빙

웨스턴지구교회(담임 김만풍 목사)가 영어중고등부 사역자 및 청년담당 부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남침례교단(SBC)에서 인정하는 신학교(M.Div)를 졸업하고 미국 취업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 영어사역자는 영어가 유창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이력서, 신앙간증문, 추천서 2통. 서류마감은 4월 30일까지. 이메일: 12dennis12@gmail.com

▲문의: (301)460-1656(ext: 211 임광 목사)

### 퀸즈 YWCA는 제 38회 연례 만찬

퀸즈 YWCA는 제 38회 연례 만찬이 4월 21일(목) 오후 6시 Terrace On the Park(52-11 111th St. Flushing)에서 열린다. 이날 플러싱 지역과 퀸즈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동참을 호소한다.

▲문의: (718)353-4553

### (8면에서 계속)

삶을 조금 더 단순하고 소박하게 만들자. 약속을 덜하고 물건을 좀 적게 사고, TV를 좀 적게 보고 조금만 덜 먹고, 잠깐과 간섭을 조금 덜 하고... 그 대신 몸을 조금만 더 움직여 산책을 하고, 청소를 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며, 기도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보면서 조금함이 아닌 그리고 건성이 아닌... 그렇게 진한 커피 향처럼 깊게 음미하는 하루를 살자. 우리는 준비된 만큼 줄 수 있고

준비된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서는 녹슬지 않는 반짝임이 보인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라. 영성은 모든 것을 하나로 관통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그 영성을 향해 내 삶을 공격하며 작품으로 만들어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감히 기대하지 않는 삶을 만나리라.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좋은 이웃이 되어 가리라. changsamo1020@gmail.com

# “양화진” 언더우드 회고... 미주 성도의 자세...

## RCA뉴욕한인교협 연합부흥성회, 강사 김진홍 목사

RCA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나영애 목사)가 주최한 연합부흥성회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렸다. 목회자 세미나는 포레스트 광교회에서, 저녁집회는 뉴욕신광교회에서 각각 열렸다.

연합부흥성회는 “양화진”이라는 주제로 김진홍 목사(뉴브런즈윅신학대학원 종교/선교사상사 부교수)가 강사로 초청해 한국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의 이야기, 미국의 한인 이민교회를 섬기는 한인들의 자세 등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당시 조선에서 목숨바쳐 복음을 전했던 미국 선교사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민 사회에 헌신하고 사람을 베풀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김진홍 목사는 8일, 9일, 10일 저녁에 “은자의 나라 조선”(마28:16-20),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들”(고전9:19-23), “자신의 조국보다 조선을 더 섬긴 사람들”(요 12:24-26)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RCA뉴욕한인교협 연합부흥성회에서 강사 김진홍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말씀을 전했다.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목회자세미나에서는 “언더우드의 생애와 선교철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김진홍 목사는 뉴브런즈윅 산하 언더우드글로벌기독교센터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다.

이번 집회의 주제 “양화진”은 서울 합정동 절두산 일대를 칭하는 외국인 묘지 지명으로 한국에 와서 순교한 선교사들의 묘가 있다. 양화진에는 언더우드와 그 가문 4대에 걸쳐 7명이 안장돼 있다.

언더우드 (한국이름 원두우,

1859-1916)는 1885년부터 1916년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이 주최한 “하나님의 구원계획” 세미나에서 라흥채 목사가 강의를 인도하고 있다.

## “참교회 세워 환난 때 피난처 돼야” “하나님의 구원계획” 세미나, 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세미나가 뉴욕교협 주최로 11일 오전 10시부터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강사 라흥채 목사는 오전에 다니엘서, 오후에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강의했다.

라 목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할 것을 강조하고 “방대한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며, 역사책이 아닌 인생의 네비게이션인 ‘리빙(living) 바이블’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약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 하 안에 모든 선지서들이 포함되며 신약은 사도행전 안에 모든 서신서가 포함됨을 알고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 목사는 “구약의 주제는 첫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창3:15), 둘째 성막 짓기, 셋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간다, 결론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연결된다”고 말하고, “신약의 주제는 첫째, 중보자 예수님의 역할 둘째, 1+1=1의 인생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성만찬) 셋째, 우리를 천국

까지 데려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라 목사는 또 “요즘 성도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잘못된 지식을 먹고 있다. 이단들이 예언서, 계시록을 보고 말하는데, 정통 교인들이 바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고 목회자들은 예언서와 계시록을 먹고 예언해야 하며(계10:7),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또 “참교회와 은혜교회로 나뉘는 이 때에 참교회를 세워 환난이 올 때 피난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 하나님 백성이 준비하고 해야 할 일 등을 알려준다”며 “영적 싸움을 통과한 후 주님 재림을 맞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라흥채 목사의 저서 “하나님의 구원계획” 시리즈는 영문판과 중국어판으로도 출간돼 미국 전역과 한국,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요청에 의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신현택 목사 '2016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수상 감사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신현택 목사, '2016 한국을 빛낸 사람들' 수상 해외종교 기독교발전공로부문

뉴욕교회협을 지난 신현택 목사(성신교회 담임)가 '2016 한국을 빛낸 사람들 해외종교 기독교발전공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신 목사는 5일 플러싱 금강산 호텔에서 열린 감사예배에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높이 평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이 상은 제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는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정진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등 11개 기관이 주관하고 2016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조직위원회가 매년 종교,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타의 귀

감이 되는 인물들을 선정해 표창하는 것이다.

1부 예배는 박진하 목사 사회로 기도 이만호 목사, 특송 김해복 전도사, 말씀 문석호 목사, 축도 김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축하 및 시상식은 황경일 목사 사회로 기도 정순원 목사, 수상자 소개 신석호 집사, 대상패 증정, 인사말 신현택 목사, 동영상(아인 시대에서 은혜시대), 축사 아트정진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 주관으로 열렸다.

(유원정 기자)

**나는 담임목사입니다**  
I AM PASTOR

가슴이 고르고 영혼이 고된 삶  
이것이 진정 살아 있는 사명의 길이다  
영혼이 고과 갈라지는 영적 리듬  
오늘을 사는 리더가 되었으면 한다

김성진 지음 / 220면 / 10,000원

**성경 속 여백 여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이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진솔한 은혜의 이야기이다. 다 채워지지 않은 성경의 긴 여백 속을 함께 여행해 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 저자는 예리한 분석, 관조자의 눈, 번뜩이는 아이디어, 새 시대를 직시하는 패러다임,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이 책에 모아 놓았다. 그러므로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부담 없이 진리의 광명을 찾아 접할 수 있다.

- 김철환 목사 추천사 중에서  
이종구 지음 / 358면 / 13,000원

**바로 그 교회**  
JUST THE CHURCH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고자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김성진 지음 / 412면 / 15,000원

저자 김성진 목사 ● 목회컨설팅연구소 소장 ● 교회와 목회 전문 컨설턴트 ● 교회와 목회 코치 ● 영적 동기부여 강사 ● 경영컨설턴트

한글인터넷주소 쿨란, 쿨란출판사 홈페이지 www.coolran.co.kr 주소 서울 중로구 이화장길6 Tel 747-1004 쿨란출판사





은혜한교회에서 주최한 이터널라이프 더 홀리스피릿 뮤지컬이 생황리에 상연됐다

### “복음 확실하게 체험하는 시간되길” 은혜한교회 뮤지컬 ‘이터널라이프...’ 성황

은혜한교회에서 주최한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2016 더 홀리스피릿’이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상연됐다. 한기홍 담임목사는 “공연을 허락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구원의 은총과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뮤지컬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하며 영육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한다”고 말했다.

복합과 사랑, 성령의 능력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토대로 집중 조명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을 부각시켰으며, 죽기까지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는 모든 악을 쫓아내고 모든 것을 살리시는 전지전능한 ‘성령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스토리를 뮤지컬로 구성했다.

(박준호 기자)



스몰캡 커뮤니티교회 창립예배에서 이영수 담임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그릇... 스몰캡커뮤니티교회 설립예배

스몰캡커뮤니티교회(담임 이영수 목사 6481 Orangethrope Suit 10, Buena Park) 설립예배가 10일 오후 3시30분에 개최됐다. 이영수 목사는 “스몰캡커뮤니티교회는 스몰캡크리스천센터라는 선교단체로 3년 전에 시작했지만 공동체로서 함께하기 위해 교회로 모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한다. 설립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를 통해 목표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흘러넘치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몰캡커뮤니티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그릇이라는 감동과 함께 그들 안에 흘러넘치는

영적인 생수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재능을 다른 껍데기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시작됐다. 믿는 자들이 하나가 돼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잉여분을 이 시대의 고아, 과부, 나그네들과 같은 육체적, 영적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현수일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설립예배는 이인 집사(남가주살롱교회)가 남미파라과이 학교사역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으며, 김재영 목사(ITS 한국학부장)가 ‘예수의 길에서’(막8:27-38)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현수일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 LA목회자아버지학교, 사모위로행사 연다 제1회...22-23일 CJ그랜드호텔&스파, 80명 선착순

LA 목회자아버지학교 주관으로 열리는 제1회 사모 위로 행사가 오는 22일(금)부터 23일(토)까지 1박 2일간 CJ 그랜드호텔 & 스파(67585 Hacienda Ave. Desert Hot Springs)에서 열린다.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보이지 않는 동역자로 모든 삼김과 봉사과 허드레 일들을 다 하지만 마음 열어 나눌 곳이 없고, 가정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가사를 돌보며 아내로 어머니로 수고하는 사모를 위로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다. 두란노아버지학교 미주본부장인 주창국 장로는 “지난 2000년 아버지학교가 시작된 후 16년간 개설돼 왔다”고 소개하며, “한어권은 물론 영어권 아버지학교, 그리고 중남미 아버지학교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680회에 걸쳐 실시됐다”고 설명하고, “아버지학교는 가족회복운동이다. 이번 사모위로행사는 사모님들이 위로받고 목회자들이 힘을 얻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목회자아버지학교에 참가자들과 오는 7월에 열리는 12기 목회자 아버지학교 참석예정자들에 한정돼 진행되며 장소사정으로 선착순 40커플(80명)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정상 사모혼자 참석하게 되는 경우도 반영한다. 이번 사모위로행사의 참가비는 가족당 20달러이며 사모는 무료다. 준비물은 성경찬송, 간편한 복장, 수영복, 슬리퍼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김인구 목사(213-700-4689)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LA목회자아버지학교가 주최한 제1회 사모 위로의 행사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CJ 그랜드호텔 & 스파에서 열린다



YNOT커뮤니티서비스 주최 제1회 시니어정보박람회가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다

### YNOT 주최 제1회 시니어 정보박람회

YNOT커뮤니티서비스가 주최한 제1회 시니어 정보박람회가 8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교육관에서 열렸다. 스티븐라임 YNOT사무국장은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정보들을 모은 박람회는 처음하게 됐다”며 “박람회를 1년에 두 차례 가지려고 한다. 시니어들을 위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이번 행사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니어 정보박람회는 YNOT커뮤니티서비스, 한미연합회, 소망소사이어티, LA노인국,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 US 센서스, 한미치매센터, 나성영락복

지상조희 등 24개 단체가 참여했다. 스티븐라임 사무국장은 나성영락교회 외에 한인타운이나 다운타운 지역에 박람회를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스티븐

### 서부교계 게시판

#### 러브&하모니 뮤직 페스티벌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목사)가 주최하는 러브&하모니 뮤직 페스티벌이 24일(주) 오후 6시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미러클 센터(645 W. Valencia Dr, Fullerton)에서 개최된다. ▲문의: (562)926-2040

#### 제6회 사랑의 무료 아이캠프

국제의료선교단체 비전케어서비스(VCS) 미주서부(이사장 이창열)와 화랑리오클럽(회장 사략박)이 오는 4월 23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LA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A) 주차장에서 ‘제 6회 사랑의 무료 아이캠프’를 연다.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여는 이번 행사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시력에 이상이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무료로 진행되며, 검진결과 백내장 질환이 발견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우를 선정해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213)281-2617

#### 더텐트 버스킹 공연

더텐트(대표 다니엘말 목사)가 주최하는 버스킹 공연이 23일(토) 오후 7시 한인타운 내 마당광장에서 ‘더 버스킹 위드 더 텐트(The Busking with The Tent)’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박승영 씨가 사회자로 나서며 해븐스밴드, 김경민 트리오, 지훈아울스프로젝트그룹, 색소폰연주자 박캘빈 씨 등 실력있는 크리스트찬 뮤지션들의 무대로 진행된다. ▲문의: (213)999-4909

####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천 목사)는 제4회 미주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 대상은 초등부(1-5학년), 중등부(6-8학년), 고등부(9-12학년), 장애 청소년(나이, 학년 제한 없음)이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면 된다. 글짓기는 한글, 영문 모두 가능하며 레터사이즈 3장 분량, 그림사이즈는 수채물감, 오일페인팅, 크레타프 등을 이용한 14X17인치(초등부), 18X24인치(중등부)이다. 그림 제출시 작품 뒷면에 이름과 학교 학년, 이메일주소, 집주소, 전화번호와 작품설명(기입해야 한다. 작품은 15일부터 5월20일까지 우편이나 방문(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또는 이메일(hyosarangus@gmail.com 글짓기에 한함)로 보내면 된다. 시상식은 6월 11일 오전 10시 플라탄장로교회에서 갖는다. ▲문의: (714)670-8004

#### 입양 위탁 고아사역 세미나

미주한국입양홍보회(회장 스티븐모리슨)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23일(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채플에서 입양과 위탁, 고아사역 세미나를 갖는다. ▲문의: (562)505-0695

### ‘소망유언서 쓰기의 날’ 캠페인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오는 4월 16일(토) 미국 보건 의료 의사 결정의 날(National Healthcare Decision Day)을 맞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든 그로브 아리랑 마켓 앞과 부에나팍 시온 마켓 앞에서 ‘소망유언서 쓰기의 날’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캠페인은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본인의 의료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사전의료 지시서를 작성해놓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으로, 연례행사로 실시하게 된다. ▲문의: (562)977-4580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후 5:30(월-토)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영성)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8 L.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2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오후 11:20 영양예배(영소-KDC, 영림도원센터): 월-토 오전 9:20 대학영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bkc.org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gdcj.org	<b>등문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dkpc.org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믿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수요예배: 오후 4:00 Tel: (213)558-7728 (전화 녹음 가능), Tel: (213)210-8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8 L.A., CA 90033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25 / Fax: (949)857-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망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b>베델한교회</b>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2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1:00(청년) 성인영양예배: 오후 8:00 대학영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6700 Harvard Ave., #4 Irvine, CA 92612 www.bkc.org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1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b>열매교회</b>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3)380-0071, Cell: (213)215-8523 38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b>얼빈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일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b>은혜한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새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청년)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라) www.junimchurch.com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gjcc.org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b>종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9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6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ew.com / e-mail: pastor@cornestonew.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노인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미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전 10:00 www.torre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서울광장 퀴어축제 절대 안된다” 주요 교단 총무 60여명 긴급 간담회

한국교회 각 교단 총무들은 7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 대표교단 총무·사무총장 긴급초청회의’를 열고 동성애자들의 퀴어문화축제 저지방안과 성도들의 4·13 총선 투표 독려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에 소속된 교단과 기관 총무 60여명은 서울시가 동성애자들의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하면 곧바로 ‘동성애퀴어축제 반대 교단연합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 교단 총무와 동성애 반대단체 대표 등 2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홍호수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사무총장은 “현재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신청서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면서 “서울광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단체와 날짜가 중복돼 일정을 조정 중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퀴어문화축제 승인을 한다면 즉각 한국교회의 하나된 목소리를 내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무들은 또 동성애와 이슬람 저지, 차별금지법안을 막기 위해 기독교회의원을 임명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성도들이 4·13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특히 전국 교회별로 8~9일 주일등 록투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휴대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각 교회에 투표 가능일 수가 3일임을

알리기로 했다.

조일래 대표회장은 “한국사회는 지금 동성애와 이슬람이라는 문화가 거침없이 밀려오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후보를 국회에 임명시켜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자유당 관계자도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은 정교분리 원칙은 일제가 독립운동을 막고 교회를 예배당 안에만 가둬놓기 위해 유포시켰던 용어”라면서 “한국교회가 이 원칙에 매여 정치권 복음화에 손을 놓는다면 동성애와 이슬람, 반기독교 세력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복음의 유전자를 안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 “AI 연구, 인공지능자만 ‘자기우상숭배’로 흐를 수도” 김동환 연신원 교수 ‘AI시대에서 하나님을 말하다’ 강의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로 관심이 높아진 인공지능(AI)에 대해 신학적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독교사상문화연구원 이 5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에서 개최한 ‘AI시대에서 하나님을 말하다’ 공개강좌다. 기독교 생명윤리와 테크놀로지시대의 기독교 윤리 등을 연구해온 김동환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가 강의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AI프로젝트의 발전 현황을 소개한 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그 스스로를 닮은 존재를 창조하려는 본성이 있다”면서 “이것이 첨단 테크놀로지인 AI프로젝트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형상을 좇으려는 AI프로젝트의 방향은 결국 인간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게 만드는 ‘자기 우상 숭배’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신학의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로 바둑기사들이 알파고와 ‘알사범’이라 부르며 따라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세대에서 인간이

‘AI’가 되고자 하는 시대를 예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는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강한 AI’와 특정 목적을 위해 인간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지능과 능력을 지닌 ‘약한 AI’로 분류된다. 그는 “최근 알파고와 일본 감성 로봇의 개발 등을 보면 감성, 예술성, 창조성을 지닌 AI가 등장하지 못하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김 교수는 기존 인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인간을 등장시키려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자기 초월 욕망에 주목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는 피조성에서 시작하는 것과 달리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이 스스로 ‘트랜스 휴먼’을 만들 수 있다는 극도로 인간 중심적인 창조성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히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의도적이라면 신 중심적인 인간이해를 비판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개념은 압제적”이라고 주장하는 미래학자 맥스 모어를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신학이 최소한 자기의 인간이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면 도전과 비판에

대응하고 대답할 수 있는 신학적 담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인간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해 ‘죽지 않는 것’을 꿈꾸는 시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인간의 욕망은 선악과를 따 먹고 추방당한 인간이 다시 에덴동산에 찾아들어와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 먹고 영생하려는 것에 빗낼 수 있다”며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 인간의 최고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의 직후 ‘AI에게도 영혼이 있을까’ ‘AI도 죄성이 있나’ 등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김 교수는 결국 기존의 인간론 근거는 무너지고 새로운 인간담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간의 신체 부위 중 팔, 다리는 물론 심장까지 기술로 대체되는 시대에 남은 것은 ‘뇌’이며, 만약 뇌까지 나노칩으로 대체된다면 과연 이런 존재를 인간으로 부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그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AI프로젝트와 사회적 담론에 주시하면서 신학을 넘어 다전공, 다학제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74개 시민단체, 표창원 후보 사퇴 촉구 “교회 폼페포르노 합법화 웬말”...표 후보, 폐북에 “깊이 사과”

74개 학부모·교사·시민단체로 구성된 밝은사회를위한 학부모·교사·시민단체연합은 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를 폼페하고 포르노 합법화를 주장한 표창원(경기 용인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연합은 성명서에서 “표 후보는 2012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과 관련해 특정 종교를 폄하·모독했다”면서 “음란하고 혐기적이며 동성애와 자살을 부추기는 레이디 가가의 공연

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모독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표 후보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는 자녀들이 포르노에 중독되지 않고 건강하고 올바른 성윤리를 갖기를 소망하는데 이러한 국민적 인식과 정서에 반하여 포르노 합법화를 찬성한 표 후보에 대해 국민들은 위험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수진 건강과가정을위한 학부모연합 대표는 “동성애는 에이

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면서 “그러나 이런 정보가 한국 사회와 아이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표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 고민했거나 발언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질을 의심해 한다”고 말했다.

표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코 포르노 합법화를 하자는 주장이 아니었다.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해 온 사람으로서 이 논란은 무척 당황스럽다”며 “포르노 합법화라는 말 자체로 우려와 불안을 느끼셨을 부모님들과 종교인들께는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린다”고 해명했다.

### 신학회들 목회 현장에 ‘신학 수혈’ 봄 학술대회 러시

각 신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엔 신학자 중심의 아카데미한 접근이 주류를 이뤘다면 지금은 목회 현장에 접목 가능한 논문이 다수 선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신학이 있는 목회’ ‘목회가 있는 신학’을 자연스럽게 형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다.

한국신학학회(회장 윤철원)는 오는 16일 서울 마포구 신촌로길 신촌성결교회 성봉체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신약서신과 하나님’으로 복음서와 바울서신, 요한계시록 등 신약 성경 전반에서 고찰한 하나님 나라 개념을 다룬

다. 발표될 논문 중에는 ‘하나님과 기독교’ ‘빌립보서 2:6의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한 문맥적 고찰’ ‘사도행전에서의 하나님 중심적 신학’ 등 목회자들이 성경 연구와 설교 준비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다.

회장 윤철원(서울신대) 교수는 “봄에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는 과거에 비해 목회 현장을 고려한 발표가 많아진 게 사실”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는 목회 현장에 새로운 신학 성경 읽기와 해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목회자들의 시각을 넓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직신학회(회장 김재진)는 오는 22일 서울 성북구 성북로 덕

수교회에서 한국조직신학자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아예 현장 목회를 지향한다고 밝히는 등 목표를 분명히 했다. 학회 관계자는 “신학이 교회와 그 현장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신학대회를 갖게 됐다”며 “목회 현장을 위한 교의학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구약학회(회장 차준희)도 ‘구약성서의 리더십’을 주제로 오는 29일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서울장신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회장 차준희(한세대) 교수는 “지금 신학과 목회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총선과 최근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성경적 리더십을 주제로 택했다”고 말했다.

### 한기총, 한국교회 폼페한 표창원 후보 사퇴 촉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사진)는 6일 ‘공명정대한 제20대 총선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동성애를 저지하기 위해 힘쓰는 한국교회를 나치, 범죄 집단으로 폼페하고 포르노 합법화를 주장한 표창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기총은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안, 이슬람 문화를 막기 위해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면서 “그러나 그러한 의사표현을 반인륜주의의 상징인 나치나 범죄 집단에 비유하고 기독교를 폼페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는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를 통해 물상식적인 발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표는 국민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이다. 투표를 통해 정치 활

동에 참여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의사를 국가 정책과 방향성에 반영시킬 수 있게 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후보나 정당 그리고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선거를 준비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할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달아 서로를 향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에는 교계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이 많이 있다. 특히 기독교 신앙 정체성과 성경의 원리를 무너뜨리며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동성애 합법화와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할랄식품 등으로 침투해 오는 이슬람 문화 등은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각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국회의원을 선출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범치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법제화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반인륜주의의 상징인 나치나 범죄 집단에 비유하고 기독교를 폼페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포르노를 합법화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에게 검증 없이 후보 자격을 부여한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후보자 스스로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를 통해 물상식적인 발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후보들과 정당의 정책과 공약, 실현 가능성을 따져서 더 나은 대한민국, 일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 깨끗하며 공명정대한 선거 운동으로 올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 교회 설교서 ‘얕은뱅이’ ‘문둥병자 말 안돼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장님’ ‘병어리’ ‘난장이’ 등 장애인에 비하하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국내에 번역된 개역한글이나 개역개정판 성경에도 이런 단어가 나온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말들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장선·회장, 윤형영 목사)는 오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지칭

하는 비속어나 욕설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용어를 교회 설교나 행사 등에서 사용하지 말아 주길 촉구할 예정이다.

한장선은 “일반 사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차츰 나아지고 있는 시점에 정작 모범이 되어야 할 한국교회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부적절한 용어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며 기독교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보다 한글성경에서 장애인을 지칭하는 잘못된 용어가 시정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

런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장애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에 성경과 설교에서의 올바른 용어사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장선은 시각장애인을 가리키는 ‘맹인’ ‘장님’ ‘소경’ ‘봉사’ ‘애꾸’ 등을 사용하지 말고 설교에서 인용하는 것을 자제하되 부득이 사용할 때는 ‘시각장애인’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성경에 나오는 ‘귀머거리’ ‘귀먹음’이라는 표현도 ‘청각장애인’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표 참조).

한편, 한장선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 지난 첫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제정했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 GPS CENTER



강사: 라흥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선교의 창 (52)

## 전통문화와 선교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모르게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그 문화는 인간의 의식구조와 사고의 틀을 갖추는데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현존의 사상과 생활 속에 배어있는 전통문화를 모르거나 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선교를 위해 타문화권에 뛰어든 사람은 맞닥뜨린 현지의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는 내용과 형식에 따라 존중하거나 갱신 아니면 타파의 대상일 수 있다. 아무튼 인간 사고체계를 겹겹이 감싸고 있는 문화를 우리는 학자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영경위나 돌쩌벌을 좋은 토양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교사가 먼저 겸손하게 현지 문화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영적 통찰력 가운데 멀리 문화사역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문화는 인간의 산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그 문화의 포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통문화에 대한 선교적 시각은 무엇인가?

리는 보이는 문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심층적인 세계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

###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예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온다. 그는 유산을 탕진하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 돼지와 같이 쥐엄 열매를 먹으며 생활했다는 내용이다. 돼지는 더러운 상징성이 있다. 하지만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에게 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그 이상이다. 아주 즐겁고 복된 소리로 들릴 수 있다. 그곳에서는 한 여인이 자기 아이와 새끼 돼지를 양쪽에 안고 젖을 물리는 그림을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토착민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선교사들은 자기 몸에 밴 문화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열심이 특 심인 한인 선교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교현장은 자국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선교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문화에 대한 폴 히버트(P. Hiebert)교수의 견해

첫째로 복음은 모든 인간 문화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오

선교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선교는 개체적 인간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형성하여 왔던 문화 역시도 선교의 대상이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존재론적으로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도 변혁을 전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의 타파해야 할 문화가 있고 복음 안에서 갱신해야 할 문화가 있다. 우상을 숭배하며 인간의 생명을 해하고 복음을 적대시하는 사탄의 문화는 반드시 적절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강한 미풍양속의 문화는 존중하며 복음으로 승화되도록 도와야 한다. 여기에 모든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은 토착화

인간은 대기를 마시듯 전통문화의 영향 속에 있다.  
복음을 가로막은 사탄적 문화는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하지만 미풍양속의 건전한 문화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쉽게 볼 수 있다. 이 나라에서 돼지는 부와 행운의 상징 및 사랑스러운 동물로서 묘사된다. 반면에 이슬람 또는 유대주의 문화권에서는 돼지가 부정함 짐승이 경멸의 대상이다. 이렇듯 문화는 지역과 종교, 인종에 따라 음식문화, 종교의식, 가치관, 생활관습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만일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갈 때 문화의 영역을 무시한다면 오해하기 쉽고 나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세계는 넓고 다양한 문화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현지 문화를 경시한 선교의 결과

과거 제국주의 시대는 식민 통치자들의 힘 등에 업고 선교가 진행되었다. 당연히 그들은 서구 문화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선교사들은 복음을 서구 문명고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들은 현지의 전통문화가 안중에 없었다. 그것은 저등 우주의 본질과 인간의 위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로서의 세계관이다. 그 세계관은 종교적일 수도 있고 세속적일 수도 있다. 문화는 크게 유형문화와 무형문화로 나뉜다. 유형문화는 무형문화의 최소 표현이다. 그러므로 우

늘날 선교사역에서 크게 실수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복음과 인간문화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자주 복음과 그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동일시할 때가 있다. 그 결과로 토착문화를 정죄하게 되고 마침내 문화제국주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로 복음은 인간 문화로부터 구별되지만 역시 문화적 형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은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형태로 성숙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한 문화권 속으로 성숙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토착화'(Indigenization) 또는 '상황화'(Contextualization)라고 부른다. 모든 문화가 각각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셋째로 복음은 모든 문화가 변화되기를 요구한다. 궁극적으로 복음은 각 개인의 죄성(罪性)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처럼 인간들이 만든 구조악(構造惡)에 대해 정죄한다. 복음은 참으로 문화 변형제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문화를 통해서 풍요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전달되어야 한다.

전통 문화 가운데 선교방향

신학의 알파와 오메가이며 초문화적이다. 이로 말미암아 생성된 문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인간을 복되게 할 때 바른 귀결점이 있다.

### 맺음 말

문화를 알면 선교가 보인다. 전통 문화를 모르면 선교가 곱돌게 된다. 현지 문화에 대한 정복적 시각은 문제가 크다. 필연코 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선교사는 정복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다. 영토나 문화를 점령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수용적 시각은 혼합주의를 유발하게 된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문화사역은 절대 진리를 훼손하게 된다. 복음적 시각이 바른 태도이다. 그것은 말씀이 신앙화 되고 신앙이 생활화 되며 생활이 문화화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선교 궤적은 사탄이 함부로 침노할 수 없다. 만일 말씀이 문화로까지 연결되지 못하면 그 선교는 당대로 끝나기 쉽다. 세대가 바뀌면 모든 것이 원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문화로 정착해야 한다.

jsong007@hanmail.net

## 선교 편지

### 멕시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Blessed are all who fear the LORD, who walk in his ways)”(시편/Psalm 128:1).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4월이 문을 엽니다. 저기 저 가지 끝에서 마침내 터져 나오는 연한 새순들과 각양의 꽃봉오리들의 저 간절한 희망이 보이시나요? ‘돌아온 사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준다 / 빛나는 꿈의 계절아 / 목련꽃 그늘 아래서 긴 사연의 편지를 쓰노라던 시인의 심정으로 펜을 듭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텐데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 하나님 앞에 값지게/맛있게/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의 기도제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질문 하에서 멕시코 선교를 지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길을 걷게 하신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 최근 100명 이상의 정계전 동네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같이 El Trompo에 다녀왔습니다. 티화나에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구경거리가 될 텐데 이 큰 대도시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번에 El Trompo에 직접 가보니 지나다닐 때 본 것과는 달리 규모가 상당히 크고, 내부가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내부의 여러 시설물들이 그런대로 아이들과 다녀올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Pizza를 먹였는데 Pizza 먹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 가난한 아이들이 Pizza를 먹으며 행복해 하는 모습-마치 꿈을 꾸는 듯 한 모습들을 보며 자꾸만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런 일들을 시행하려면 많은 경비가 듭니다. 입장료, 버스 렌트비, 100명이 될지 150명이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숫자, Pizza를 몇 판을 예약해야 되는지 등등. 그런데 David 목사님과 Elizabeth 사모님과 그 형제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뛰어주었습니다. Elizabeth 사모님은 허리가 좋지 않아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고 했었는데도 아주 열심히 섬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동역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짧게 짧게 쓰겠습니다.

▶ 영화 상영 500회-2월 하순으로 500회를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이곳 티화나 지리도 익히고, 멕시코 목사님들과 관계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영화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화를 상영했던 곳들은 일반 교회는 물론 고아원, 많은 Shelter들, 양로원, 공원, 여러 교도소들에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도미니카에서도 63회의 영화를 상영했었습니다. 500회는 오로지 멕시코에서만 상영 횟수입니다. It's amazing! 제가 생각해도 정말 놀랍네요. 이에 대해서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 매년 7월 10일경 열리는 달동네 미니 초등학교 졸업식-졸업식 할 때마다 학생들, 특히 중학교에 입학할 졸업생들을 위해 학용품들이 담긴 백팩(메는 가방)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학교에 입학하면 학교 로고가 있는 가디건, 티셔츠, 원피스(여), 바지(남), 스웨터, 아무 때나 입는 체육복 중에서 몇 가지를 사주어 이 가난한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주변 교회에 출석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 여름 수련회(Campamento de Verano)-제가 아주 좋아하는 멕시코 교회에서 매년 여름 주최하는 '청소년 여름 수련회'에 청소년들을 두 번을 참석시켰습니다. 매일 아침의 그룹별 말씀 묵상, 낮 시간의 단체정신을 함양하는 프로그램들, 맛있는 식사들, 많은 리더들의 섬김, 저녁의 멋진 드라마와 메시지 등이 너무 좋았고, 수련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큰 흐뭇함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더 많은 30명 이상 50명 정도의 청소년들을 참석시키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재정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선교 센터의 필요-많은 교회와 단체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센터가 있다면 더 왕성한 사역이 될 텐데 늘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모델도 있지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땅은 안사지만 누군가가 대지를 기증하면 주님의 뜻으로 알고 선교센터 건축을 해보려고 기도해왔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 위에 쓴 David 목사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대지(약18mx30m)를 선교센터로 지어서 활용하라고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 일도 선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016년 4월의 문을 열며  
최재민 선교사 드림

4mexico@daum.net

## PRINTING & PROMOTION

# 프린팅 & 프로모션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 - 토 : 오전 9:30 - 오후 8:00

##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전문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타올



머그컵



교회/매장/기타단체

#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mailto:bookskorea@gmail.com)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07)

##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31)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중 오늘은 다섯 번째 기초로서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사회학적 기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Sociological Foundation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성경적, 신학적, 그리고 철학적 기초들이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어떤 보편적이고 개별 문화를 뛰어 넘는 기초 원리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역사적 기초들이 개별 문화에 조정을 둔 문화적 경험과 각 문화 상황의 특별성에 대한 이야기, 즉 과거의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학적 기초는 그러한 특정 시기 특정 장소 중에서도 우리 자신이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사회와 공

사회학적 견해가 올바른지 그렇지 확실할 수 없을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한 인공동체 및 미국사회의 구성원, 사회의 구조, 가치, 문화/사회 현상 및 그 원인, 문제점들 등등에 대한 사실적 정보들을 수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나, 이에 대해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기독교적/성경적 해석을 하는 과정은, 그리고 교육 상황들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점을 수립하는 과정은 실제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우리 사역자들은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사회학적 기초를 세우 나가는 일에 집중하여 에너지를 쏟는 일을 주저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무 무리한 요구이며 그 보다 더 중요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특별히 한인교회의 교육을 고민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 사회학적 기초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공동체인 한인공동체에 관한 사회학적 기초에서 출발하여 한인공동체가 속해 있는 미국 사회에 대한 사회학

적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한인 교회는 한인공동체의 사회적 모습을 바로 알고 분석하며 기독교적/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그 공동체의 필요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며, 또한 미국 사회의 모습을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도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살고 상호작용하는 곳이니 말입니다. 먼저는 한인공동체의 구성원, 사회의 구조, 가치, 문화/사회 현상 및 그 원인, 문제점들 등등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 및 통찰, 그리고 각각의 부문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로 인한 제 현상들에 대한 기독교적 분석 및 해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인 지체들과 다음세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교육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사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에 더하여 한인공동체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사역경험에서 얻은 한인교회 사회적 특성을 바른 신학적 기초에 의거 미국사회 다문화적 가치가 한인공동체에 미치는 순/역기능 해석 적용

동체의 모습과 작용들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육하고 섬기고 있는 한인 지체들과 자녀들은 바로 어떤 특정한 "사회"라는 공간과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교육의 장(context)인 교회도 그 특정 사회의 구조 안에 존재해왔으며, 영향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자체도 사회적 기관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지요)

또한 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사회화 과정(한 사회의 통합 및 영속을 위해 그 사회의 통념과 가치를 수용하고 재생산해 나가는 과정)으로도 이해될 만큼 소속된 사회의 모습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인교회의 교육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그 교육을 위해 사회학적 기초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해당 사회 및 문화의 구조와 기능 및 현상과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과 어떻게 상호작용해 가는지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사회학적 기초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발 딛고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분석적인 통찰력 즉,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기능하고 작용하며 그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회학적 기초란 단순히 현재 사회의 모습, 기능, 현상, 작용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그 영향력을 살피고 대처하는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사회학적 기초 그 이

그러나 감히 단언하건대, 이는 반드시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면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학자들의 연구들을 참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지체들과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공부하는 주제 또한 우리 사역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역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의 다문화적 가치 가 미국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 특히 그 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한 양질의 건전하고 훌륭한 자료가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이 자료가 결코 자동적으로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사회학적 기초들 중 하나로 기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섬기는 지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해 동안 다져온 올바른 신학적 성경적 기초들에 의거하여, 미국 사회의 다문화적 가치가 한인공동체와 한인 교회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그 순기능 및 역기능 등을 해석해야만, 그것이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사회학적 기초들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역자들이,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한인교회를 위한 사회학적 기초를 세워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inaichung@yahoo.com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교육의 기초로서 위와 같은 사회학적 기초를 스스로 세워나가는 일이 그리 수월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얻은

사역경험에서 얻은 한인교회 사회적 특성을 바른 신학적 기초에 의거 미국사회 다문화적 가치가 한인공동체에 미치는 순/역기능 해석 적용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 월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삼상23:5-8)

유다 땅에 숨어있는 다윗은 블레셋이 그 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블레셋과 싸워 크게 승리하고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이 염려했던 대로 다윗일행은 사울왕의 포위망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승리를 얻었는데 오히려 독안의 쥐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할 때에도 위험이 닥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불러서 훈장을 쥐야하는 상황인데도 다윗이 독안에 든 쥐가 됐다며 하나님께 다윗을 내손에 붙이셨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생명의 은인임에도 사울왕이 두려워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 화 원컨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삼상23:9-10)

다윗에게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참으로 귀한 일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더욱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확실한 응답을 받은 다윗은 그 즉시 그일라를 떠나 심 황무지로 피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잡으려 내려 올 것인지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히 더욱 감동이 되는 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그일라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들 때문에 사울왕이 그일라를 치러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술한 일과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입니다.

## 수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삼상23:10-12)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급하게 두 가지의 기도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사울왕이 쳐들어오겠는가?"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서 사울왕에게 넘겨주겠는가?" 제사장 아벳 즉 우림과 돌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만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두 가지 중 급한 것을 응답해주셨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허겁지겁 도망

가려고 하거나 그일라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숨으려고 하지 않고 또다시 두 번째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쳐들어 올뿐만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확실한 응답을 받은 다윗은 그 즉시 그일라를 떠나 심 황무지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다 응답해주십니다.

## 목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리라(삼상23:13-14)

우리가 때로는 급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함께 한 백성들이 다윗과 그의 6백명을 찾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습니다.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육백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로 황무지로 피신하는 다윗과 그

의 사람들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매일같이 이 잠듯이 뒤져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 금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삼상23:15-16)

다윗은 지금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라의 왕으로써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계속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심 황무지 수풀로 더 깊숙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믿음의 친구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거처를 알고 수풀로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로 극적인 만남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

요? 이 만남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죽은 후에도 아름답게 계속 이어집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좋은 신앙의 친구는 가장 어려울 때 찾아와 친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친구로부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 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삼상23:17-18)

신앙의 좋은 친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위로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꿈과 비전으로 친구를 위로합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이 언제 불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

이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다윗을 위로하는 신앙의 친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믿음의 친구 요나단은 위험에 빠진 다윗을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왕이 돼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7:30 Tel. (0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lan.org Tel. (02)2-490-70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b>새이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매일) (철야인양을 위한 헌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찬양예배: 오후 6:30 Tel. (02)418-3191-3, (0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46-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920-990-990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43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 번지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86-6579, 새벽 (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b>안양 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0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9-1(140-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 평화통일을 위한 구국기도회 및 한국교회 원로·은퇴목회자 체육대회

■ 일시: 2016년 4월 14일(목) 9시~15시 ■ 장소: 잠실학생체육관 (자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8번 출구)

## 원로목사님 사랑합니다!

### 4월 14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만남시다

◆ 선착순 3000명, 부부동반 환영 ◆ (참석하신 원로목회자분께 한하여 교통비와 기념품을 드리며 편안한 복장으로 반드시 운동화를 신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등록을 못하신 원로목사님과 사모님들은 현장등록이 가능합니다.”



조용기 목사, 피종진 목사, 신신목 목사, 임원순 목사, 이상모 목사, 이영훈 목사, 강영선 목사, 송용필 목사, 한은수 감독, 김진옥 목사, 이상형 사관, 이주태 장로



문세광 목사, 김형대 목사, 정의화 국회의장, 이심 회장, 이경은 목사, 윤항기 목사, 임동진 목사, 한인수 장로, 정영숙 권사, 최덕신 전도사, 정주호 집사, 이상용

**광역시·도 대회 대표회장**  
 서울 김재승 목사, 부산 조영호 목사, 대구 남태섭 목사, 인천 김기복 목사, 광주 방철호 목사, 대전 김용호 목사, 울산 김경호 목사, 강원 이철 목사, 경기 서정달 목사, 경남 윤화구 목사, 경북 한진희 목사, 전남 오현석 목사, 전북 김광혁 목사, 제주 장을룡 목사, 충남 전갑재 목사, 충북 남상하 목사

#### 정중히 모십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또 한번의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이셨던 존경하는 원로목회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평화통일을 위한 구국기도회]와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북핵문제해결, 정치안정, 동성애반대, 이슬람 확산저지, 경제안정의 국난극복을 위한 중대한 '평화통일을 위한 구국기도회'에 동참하시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한국기독교 130년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체육대회'를 통해 기쁨으로 친교하며 교제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셔서 귀한 행사를 빛내주시는 주인공들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명예총재 피종진 목사 이사장 임원순 목사

초청인 공동대회장 및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상임이사 (7인-4인 순)  
 고신 오성환 목사, 기침 지 덕 목사, 구세군 이상형 사관, 그리스도 최윤권 목사, 기광 김진호 목사, 기성 이용규 목사, 기정 김동원 목사, 기저성 신신목 목사, 기하성 박정근 목사, 나사렛 김영백 목사, 대신 최복규 목사, 루터교 김해철 목사, 백서 서상기 목사, 성서침례 장두천 목사, 예광 김원도 감독, 예성 조병창 목사, 통합 최병두 목사, 합동 김동원 목사, 한기총 송용필 목사, 한병예과 강영선 목사, 한기원 이상모 목사, 한목원 박성훈 목사

#### 평화통일을 위한 구국기도회

4월 14일 09시 ~ 12시

국난극복을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최덕신, 주찬양싱어즈, 옹기장이선교단이 함께 찬양합니다.

#### 체육대회 목적

체육대회 13시 ~ 15시  
 원로목회자 체육대회는 한국기독교 130년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3,000여명의 원로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으로 원로목회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경료효친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각종 체육행사와 더불어 기도회, 무료건강검진 부부기념사진 찍어 드리기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헨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참석자 모두 함께 합창을 함으로서 체력증진과 하나님께 영광, 인생2막 또 다른 사역의 시작이라는 선곡, 원로로서의 자부심과 또한 최대인원 합창과 최고령 합창으로 세계기네스북에 도전하여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저력을 과시하고 전 세계의 기독교 원로목회자들에게 모범과 본을 보인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는 원로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터전 마련과 예배 및 기도회, 신학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원로목회자 회관건립을 목표로 하고있다. 원로목회자 체육대회를 통해 회관건립을 위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하여 기금마련의 모티브를 요한다.



대회 모델 피종진 목사, 이성자 사모(한국기부재단 재능기부 1호)



대회장소/잠실학생체육관 전경



지창용 목사, 박진섭 목사, 김준 목사, 임원영 권사, 김삼숙 권사, 이상철 장로, 신연욱 국장, 이명임 목사, 유경선 장로, 이봉준 장로, 문형봉 장로, 권지은 전도사

참석문의 02-395-1541 추진위원장 이주태 장로 010-2351-6771

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02-395-1544

주최: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대회 공식 후원기업 모집 02-3394-8877